1. 프롤로그. 물류창고. 밤.

어두운 창고안. 빠루에 뜯긴 자물쇠 떨어지는 소리. 손전등 든 여자가 들어온다.

펩시 나래이션 :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담장과 자물쇠. 그리고 경보기가 언제나 지켜줄 거라고. 그런 건 그냥 신호등 빨간불이나 마찬가지다. 무단횡단엔 도리 없다.

경보기틈으로 면도거품기를 뿜는다. 불을 켠다. 덩그렇게 놓인 컨테이너에 다가가 허리춤에서 꺼낸 가느다란 열쇠 몇 가닥으로 쉽게 연다. 금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다이얼은 고장 났는지 까딱거리지 않는다. 열쇠구멍을 만져보다가 이상한 느낌에 벌떡 일어난다. 펩시다.

펩시 나래이션 : 불길한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빨간불이다. 지금까지 너무 쉬웠다. 담장도 자물쇠도 경보기도.

컨테이너박스 문에 소유주 이름을 확인한다. 이때 전화벨이 울린다. 얼굴이 굳어진다.

펩시 : 소유주가... 그렇다면 함정이다.

2. 미술관 안. 관장실. 낮.

미술관 내부를 걸어가는 두 여인. 넓은 챙 모자를 쓴 젊은 여인과 등산복 입은 모친. 관장실에서 나오던 경비실장이 슬쩍 관장에게 신호를 보내자 급히 머리를 만지고 환한 잇몸을 확인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관장. 두 여인이 들어온다.

관장 : 어머님 첨 뵙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마중 나갔어야 되는데 잡지사 인터뷰가 있어가지구요. 산 좋아하신다고.

씹던껌 : 네. 차림이 좀.. 근데 첫만남에 어머니래니까 좀 무섭네요.

관장 : 아휴 말씀 놓으세요. (인터폰으로) 우리 보이차 좀 줘요. 이번에 운남성에서 가져 온걸로. 첫물은 꼭 버리고.

씹던껌 : 차는 무슨. 저거 로얄 샬룻튼가요? 한잔 줘봐요. 오늘은 좀 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관장님한테 순결을 줬다 이거지요?

애니콜 : 아이고 우리 엄마!

씹던껌 : 너 벤츠도 한번 타면 중고다. 거기 한번 서보세요. 아뇨 다 보이게.

관장이 위스키를 따르고는 뻘줌하게 섰다가 테이블 옆으로 나온다.

씹던껌 : 기형아는 아니네요. (위스키를 털어넣으며) 내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 이관장님 돈 많아요?

3. 미술관 옆 주택건물. 낮.

계단을 올라가는 단단한 몸의 뽀빠이. 시시티비가 비추고 있자 우산을 펴들고 지나가더니, 빠루로 옥상문을 뜯는다. 그 뒤를 따르는 20대 잠파노.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흥겹게 걷는다. 옥상 난간에서 내려다보면 미술관이 보인다. 난간에 완강기 를 설치하는 잠파노.

4. 미술관. 낮.

씹던껌 : 그러면... 이 건물은 이관장님 거예요?
관장 　: 아직까지는 아버님거죠.
씹던껌 : 그림들은요?
관장 　: 위탁판매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면 자꾸 제 자랑 같아 가지고 그런데..
　　　제 개인 소장물은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애니콜은 관장에게 이해해 달라는 미소를 날린다. 관장이 사람 좋게 웃는다.

씹던껌 : 내가 좀 봐도 될까요?
관장 　: 어떤...거?
씹던껌 : 그 작품들!
관장 　: 아! 작품들! 그럼요.
씹던껌 : (애니콜이 일어나려하자) 넌 여기있어. 우리끼리 얘기 좀 더하게.
애니콜 : 껌!
씹던껌 : (껌을 잊었구나 내가) 껌? 아~ 껌!
애니콜 : (관장에게 속삭이며) 미안해. 우리 엄마 좀 이상하지?
관장 　: 아방가르드하시네.

애니콜이 관장에게 살짝 입을 맞춘다. 그사이 씹던껌이 핸드폰을 꺼내 단축버튼을 누른다.
(INS) 건너편 옥상에 뽀빠이 핸드폰이 울린다. 뽀빠이는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관장이 나가자, 애니콜 미소가 사라진다. 서둘러 하이힐과 치마를 벗으면 망사스타킹 위로 작업바지가 드러난다. 씹던껌이 놓고간 배낭을 열자, 산악장비와 운동화.
무전기가 나타난다. 애니콜이 창문을 연다.

애니콜 : (무전기에 대고) 슛 준비해.

5. 미술관 옆 주택건물 옥상. 낮.

뽀빠이가 가방에서 작살총을 꺼낸다. 잠파노가 완강기에서 로프 릴을 인계하면,
로프 끝에 후크를 묶어 총에 장전하는 뽀빠이. 미술관 옥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로프가 슈욱- 허공을 가른다. 미술관 건물을 넘어 반대편 벽으로 늘어뜨려지는 로프.

6. 미술관 관장실. / 옥상.

창문너머 로프끝을 잡는 애니콜. 미리 입은 하네스에 로프를 연결하고 베낭을 둘러맨다.

애니콜 : (무전기에 대고) 굿샷! 많이 늘었네. 잠파노.
뽀빠이 : (무전기 소리) 내가 쏜거다.
애니콜 : 우리 잠파노는 언제 한번 쏴보나. 올려.

-미술관 옆건물. 잠파노가 완강기 버튼을 누르자, 천천히 조여지는 와이어줄. 애니콜이 벽을 타고 옥상으로 오른다. 옥상위를 비추는 시시티비. 베낭에서 후레쉬를 꺼내 시시티비를 향해 켠다. 붉은 레이저가 정확하게 렌즈를 비춘다.

7. 미술관. 지하창고.

지하창고를 촘촘히 비추는 적외선이 사그러든다. 문이 열리고 관장과 씹던껌이 들어온다.

씹던껌 : 이 방은 냉장고 같은건가요?
관장 : 아주 비싼 냉장고죠. 원래 적외선이 쫙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오분만에 자동으로 복구 되구요. 근데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젊으셨을 때 그림 하셨다면서요?
씹던껌 : 우리 딸이 그래요? 내가 그림 했었다고?
관장 : 네. 서양화쪽 하셨고 무척 낭만적인 삶을 추구하신다고.
씹던껌 : 내 인생이 그렇게 한단어로 표현되는게 아니긴 한데 뭐랄까.. (슬슬 자기 인생을 반추한다) 그래요 낭만이죠. 세상하고 나하고 한번 붙은거니까. 내식대로 선전포고 한건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관장 : 현재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씹던껌 : 이기고 있는 것 같애. 여세요.

관장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돌아보면, 씹던껌이 이해하며 돌아서준다.

씹던껌 : 어머 그렇지. 그런 건 보면 안되지.
관장 : 원칙이라서요.

관장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씹던껌 주머니에서 안테나가 나온다. 작은 해독기 스위치를 켜는 씹던껌. 관장이 금고 문을 돌리는 사이, 씹던껌이 씹던 껌을 적외선 렌즈에 붙이고는 마른 기침을 뱉는다. 관장이 돌아보자, 괜찮다는 제스추어를 보낸다.

(INS) 건너편 옥상. 뽀빠이가 이어폰을 듣더니 스톱워치를 누른다. 5분이 설정된다.

무전친다. “시계 돌아간다” “오케이” 애니콜이 미술관 옥상 환풍구를 뜯어낸다.

금고문 열리고 미술품들이 보여진다. 그림들. 도자기들. 수집된 우표들. 씹던껌이 감탄한다. 대충 보는 듯 하면서도 그 중 청자해태향로에 눈길이 간다.

8. 미술관 외부. 낮.

-애니콜이 베낭에서 삼단봉을 꺼내 환풍기 안에 밀어넣자 환풍기가 멈춘다.
-건너편 옥상 잠파노 무전기로 애니콜 소리 들린다. “당겨” 잠파노가 완강기 줄을 당긴다.
-환풍기 앞에 선 여인의 몸에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진다. “스돕”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는 여인. 무전친다. “내려”
-건너편 옥상에서 잠파노가 완강기 줄을 늘어뜨린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미술관 환풍기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여인. 다급하게 무전친다. “빨라~ 잠파노 씹탱이 너 죽을래?” "쏘리“

9. 미술관. 지하창고. 낮.

씹던껌 : 내가 아까 돈 많냐고 물어봤을 때 좀 속물같아 보였죠?
관장 :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씹던껌 : 그래요 난 속물 맞아. 맞는데. 이관장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우리 딸이 남자는 참 잘 물었다!고? (휘청) 어머 나 취했나봐. 가야겠네.

씹던껌이 금고 밖 책상에 손을 집으며 해독기를 의자에 놓는다.

관장 : 어머님 지금 저한테 말 놓으셨습니다.
씹던껌 : 조금 편해졌나봐 내가.

창고문을 나가는 둘. 문 닫히자, 적외선 렌즈에 붙여놓은 껌이 빨갛게 물들고 적외선은 나오지 않는다. 천정 배기관이 열리고 애니콜이 내려온다. 둘러본다. 어디있지 그게?

뽀빠이 : (무전) 들어갔어?
애니콜 : 안보여 해독기가.
뽀빠이 : 빨리 찾아. 3분 남았다.
애니콜 : 뭐야 이 여자. 어디다 놨어? (마치 씹던껌 인듯 행동하며) 이관장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우리 딸이 남자를 참 잘 물었다!고? (휘청) 어머 나 취했나봐. 여기 있구나.

의자위에 음파해독기를 켜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관장 아들 ‘원칙이라서요’ 소리가 섞여서 들린다. 다시 한번 누르자 비밀번호 소리만 들린다. 모니터에 뜨는 비밀번호.

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여는 애니콜. 배낭에서 가짜 청자해태향로를 꺼내 진짜와 바꾼다.

10. 몽따쥬. 퇴각. 낮.

-옆 건물 옥상. 잠파노의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애니콜 목소리. '오케이 났어. 땡겨' 잠파노가 완강기를 조작하고, 뽀빠이는 작살총을 챙겨 옥상에서 내려간다.
-환풍구 통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라가다 천정에 쿵 부딪치는 애니콜. "에쿠야".
-계단을 내려온 뽀빠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빠루로 현관문을 딴다. 빈집이다. 창문너머 건너편을 올려다보면 미술관 옥상난간이 보인다. 담배를 꺼내 무는 뽀빠이. 시계를 본다.
-환풍기를 빠져나와 삼단봉을 빼자, 맹렬히 돌아가는 환풍기 펜.
-관장실로 걸어가는 관장과 씹던껌. 씹던껌이 시계를 본다.
-미술관 옥상. 전속력으로 옥상을 내달리는 애니콜. 구조물이 발에 걸려 넘어진다. 깨금발로 고통을 참으며 뛴다. 어깨에 부착한 무전기에서 들리는 뽀빠이의 목소리. "10초전!" 애니콜이 소리친다. "로프!"
-주욱 늘려지는 로프. 옥상난간을 훌쩍 뛰어넘는 애니콜. 허공을 활강하며 내려온다. 완강기에서 풀려나오는 로프. 마킹해 놓은 지점에서 잠파노가 정확히 정지시킨다.

11. 관장실 낮.

관장과 씹던껌이 관장실 방을 열면, 애니콜이 맨발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을 참다가 벌떡 일어난다.

관장　: 왜? 어디 아퍼?
애니콜 : 크으... 여자들만 아픈 거 있어.
씹던껌 : 이 사람 꽉 잡아라. 사람이 됐더라.

-옆건물. 뽀빠이 스톱워치가 0:00:00을 가리킨다.
-지하금고. 적외선 램프에 붙은 껌. 위태롭더니, 경보가 울린다.
-관장이 놀란 얼굴로 경보기를 바라보고, 애니콜은 슬그머니 치마 지퍼를 올린다.

관장　: (인터폰으로) 이 경보가 어디서 나는거야?
직원　: 지하창곱니다.
관장　: 내가 지금 거기서 왔는데.

12. 지하창고

금고가 열리고, 안을 살피는 경비실장. 다급한 관장이 오작동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나온다. 경비가 적외선렌즈에 붙은 껌을 뗀다. 경비실장이 다시 금고안을 본다. 금

고안에 다소곳이 놓인 청자향로. 먼지자국이 조금 어긋나 있다. 향로를 들어올려 뒤집어보면 made in china.

13. 관장실. 낮.

경비실장 : 사모님 죄송하지만 베낭 좀 열어보겠습니다.
애니콜 : 오빠!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거야?

관장이 전화받는 척 하며 눈길을 피한다.

씹던껌 : 이관장님! 지금 이거 열면 내 딸 다시 못봅니다.

베낭을 든 경비실장이 관장을 본다. 관장이 아주 약간 고개를 끄덕인다. 경비실장이 베낭을 빼앗자, 애니콜이 실망의 탄성을 내뱉으며 핸드백을 들고 나간다. 씹던껌도 나간다.

관장 : 저기.. 이건 그냥 보안매뉴얼에 나오는 거야.
애니콜 : 오빠. 근데 사랑엔 매뉴얼이 없잖아.

베낭안에 향로는 없다. 난처한 관장. 관장실 밖 창문. 향로가 담긴 침낭백이 대롱대롱. 완강기가 가동되더니, 침낭백이 옥상으로 딸려 올라간다.

14. 미술관 외부. 낮.

바닥을 질질 끌며 와이어줄에 매달려 옥상끝으로 가는 침낭백. 미리 묶어둔 파란리본이 완강기앞에 오자 스탑시키는 잠파노. 미술관 옥상난간에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침낭백. 뽀빠이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날아온다. 침낭백을 받고는 고리를 푸는 뽀빠이.

두 여인이 미술관을 걸어나온다. 그 뒤로 가방을 멘 뽀빠이가 걸어오더니, 미리 가져다 놓은 자전거를 타고 떠난다. 미술관 뒤쪽에서 잠파노가 해충박멸차량을 몰고 온다.

15. 거리. 낮.

신호가 바뀌자, 사거리에 선 잠파노 차. 시동을 끄더니, 장갑으로 대충 차 안을 닦고는 차 밖으로 나오더니, 그대로 차를 놓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잠파노. **'도둑들'** 타이틀 올라간다.

16. 폐차장. 낮.

침낭백에서 청자해태향로를 꺼내는 장물아비.

뽀빠이 : 국립에 기린향로보다 더 잘 빠졌잖아. 거 원래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에요.

장물아비 : 그러지. 그리야 선진국이지.

뽀빠이 : (돈을 보고는) 근데 돈이 왜이래. 얼마니?

잠파노 : 1억 딱 떨어지네요.

장물아비 : 지금 당장 내가 이걸 갖다 팔데가 없잖어. 관장놈이 수배 때려놨을텐디 어쩌겄어. 2.3년 삭혔다가 내놔야지. 뽀빠이가 나라도 1억밖에 못주지 않겄어?

뽀빠이 : 선의취득한걸로 해갖고 알아봐.

장물아비 : 선의취득도 시효가 7년여 이사람아. 어떻게?

뽀빠이 : 뭘 어떡해. 눈앞에 현찰은 무조건 먹고 봐야지. (잠파노에게) 나눠. (모두에게) 1억씩 해주기로 했던건 약속이니까 내 지갑에서 까지 뭐.

씹던껌 : 됐어. 나는 3년후에 받을게. 그때까진 살겠지.

애니콜 : 나는 지금 받아도 되지?

애니콜이 돈을 세기 시작한다.

씹던껌 : 너는 애가 동지의식이 그렇게 없니?

애니콜 : 동지가 주신대잖아. 홀애비 냄새 참아가면서 5개월을 작업해놨으니 내 청춘 어디서 보상받어? 캐쉬로 메꿔야지.

잠파노 : 너 미술관장이랑 잤냐?

애니콜 : 안잤지. 근데 니가 그걸 왜 물어봐?

씹던껌 : 얘! 같이 안잤으면 것도 재주다, 고기는 안팔고 고기굽는 냄새만 팔았냐 5개월을?

애니콜 : 씹던껌! 내가 고기야?

씹던껌 : 이게 똥닦던 걸레를 입에 쳐물었나 어디 씹던껌 씹던껌 어른한테. 나이도 어린게 굽히고 배우는 맛이 없어. 경우없이.

애니콜 : 그렇게 경우 따지는 분이 왜 도둑질을 하고계실까. 그리고 중년에 그렇게 욱~하고 올라오는거는 주기적으로 섹스를 안 해줘서 그래. 하긴 주기적이 뭐야? 안한지가 지금...

씹던껌 : 나는 평균보다 많이 하고 살아. 저번주에도 내가 세번이나.. 아휴 귀찮아죽겠어 남자라면.

장물아비 : 왜들 그려? 담 작품이 100억이 넘는건디.

잠파노 : 그건 또 뭐야?

장물아비 : 얘기 안했어? 마카오박 오다 내린 거?

모두들 뽀빠이를 바라본다.

애니콜 : 마카오박이 누구야?

씹던껌 : 옛날 뽀빠이 보스.

뽀빠이 : 무슨 보스야? 그냥 파트너였지.
잠파노 : 형이 접때 얘기했던 그 배신자 새끼?
장물아비 : 걔가 스물네살 때 막 군대 제대하고 백만원인가 갖구 마카오 가서 캬~ 얼마 땄더라? 하룻밤에
씹던껌 : 팔십팔억! 그래서 마카오박이지.
애니콜 : 남들 돈 벌었다는 얘기 뭐.. 나 아니면 다 쓸데 없어. 근데 왜 안해?
씹던껌 : 마카오박 작품이라면 믿고 가야지.
뽀빠이 : 그 새끼를 어떻게 믿어? 중국 애들도 같이 낀다는데.... 오늘 누가 또 오기로 했어?

뽀빠이가 반투명 창문 깨진 곳을 통해 밖을 본다. 차에서 남자 둘 내린다.

뽀빠이 : 음악 켜.

밖에선, 걸죽한 가래침을 툭- 뱉고 어기적 걸어오는 반장과 형사. 문을 열면, 음악소리. 뽀빠이 혼자서 차 부속품을 닦고 있다. 뒤따라온 형사가 사무실을 살피더니 음악을 끈다.

반장 : 야 뽀빠이! 경기 좋냐?
뽀빠이 : 경기야 있는놈들만 노나는 거지. 여긴 뭐 찬바람 부나 뜨거운 바람부나 어제가 오늘같고 그렇지.
반장 : 이성미술관이라고 알지?
뽀빠이 : 알면 왜?
반장 : 우리가 거기를 쭉 보고 있었거든. 한 석달을. 관장새끼가 그림이고 도자기고 닥치는대로 사온다고 중국에서. 야! 그 중국에 무시무시하다는 장물아비 새끼 이름이 뭐지?
형사 : 웨이홍입니다.
반장 : 어. 웨이홍. 비자금이지 시발놈. 몇천억을 썼다는데. 근데 어제 딱 털린거야 거기가. 보안업체랑 지구대 애들 막 뜨고 난리가 났는데 털린게 없다고 딱 버텼대.
뽀빠이 : 요새 난 신문을 안봐서.
반장 : 고게 아니라 만일에 말야. 재떨이가... 여기다 떨어도 돼?

반장이 옆에 있는 향로를 가리킨다. 뽀빠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재를 떤다. 가래도 뱉고.

반장 : 너라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겠냐?
뽀빠이 : 나라면... 옆 건물에 와이어 앙카박아서 들어갔겠지. 여기 무릎만 괜찮았으면.
반장 : 영식아! 그거 함 보여줘 봐라. 얘네가 딱 그렇게 들어 갔더라구.

형사가 내놓는 사진. 시시티브이에 찍힌 애니콜과 씹던껌.
사무실을 기웃거리는 반장.

반장 : 거기 몸매죽이는 애 옆이 씹던껌 아냐?
뽀빠이 : 이게? 이게 씹던껌이야? 하도 안봐서 요새. 살많이 쪘네.

반장　: 안보기는.. (뽀빠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영식아. 이걸로 전화해 봐봐. 받나 보게.

커튼뒤에 숨어있는 도둑들. 애니콜이 씹던껌보고 입술로 ‘핸드폰 꺼’라고 말한다. 씹던껌이 알겠다고 핸드폰을 찾는데, 없다. 형사가 전화를 건다. 씹던껌이 핸드폰을 어디다 놨더라 하는데, 씹던껌 핸드폰은 형사뒤쪽 서랍장위에 있다. 뽀빠이가 그 핸드폰을 본다.

뽀빠이 : 만일 내가 들어갔다 치면 씹던껌은 선수로 안써. 말도 안듣고 (슬그머니 일어나며) 일단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 나이 먹으니까 빠짝 쫀거지. 시시티비나 찍히고. 근데 얘기가 왜 이렇게 슬슬 좆같이 돌아가?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다 이거야?

형사가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르고, 씹던껌은 가슴을 졸이는데 뽀빠이가 핸드폰을 슬그머니 밀어 물통속으로 집어넣는다.

반장　: 에이 거는 아니고 한번 방랑자는 영원한 방랑자다. 이런거지.
형사　: 전화 안 받는데요.
반장　: 하나 더 맥여봐라. 뽀빠이 너 사진 잘나왔더라. 그 시간에 거기서 자전거는 왜 탔어?

침낭백을 멘 뽀빠이 뒷모습이 찍혔다.
반장이 사무실을 기웃거리다가 커튼에 눈이 간다.

뽀빠이 : 이게 나라고? 참 나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그리고 수색영장 갖구와. 그 커튼 열려면.

커튼을 힘차게 여는 반장. 탕비실. 아무도 없다. 한숨 쉬는 반장. 그러나 커튼 옆 벽면에 숨어있는 네 명의 도둑들.

반장　: 딱 까놓고 지금 내가 잡을려는 게 거기 관장이거든. 얘기했잖아 석달 박았다고. 너는 그냥 참고인이고 훔친거만 주면.
뽀빠이 : 잃어버린 게 없대잖아.
반장　: 와 나 진짜. 너도 한 석달 따라다녀? 엄정한 법집행을 퍼부어봐 내가?
뽀빠이 : 법이 원래 좀 느리지 않나?
반장　: 이제부터 빨라지지 법이 특별히 너한테는. 영장 본지 오래됐지? 가자 영장 가지러.
.
반장이 향로에 담배를 던져 넣고 나간다. 형사가 그 뒤를 따른다.
뽀빠이가 향로를 집어 들더니 안을 보고는,

뽀빠이 : 씨발놈이 문화재에다가...

커튼 젖히고 나오는 도둑들. 씹던껌이 핸드폰을 찾으러간다. 애니콜이 피식 웃는다.

뽀빠이　 : 넌 이게 재밌냐?
애니콜　 : 짭새가 뽀빠이 찍었으니 어떡해. 잠파노! 여기 문닫고 우리 마카오가게 생겼다.
잠파노　 : 거길 왜 가 형님이.
장물아비 :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어 안하겠다고.
뽀빠이　 : 그러니까 뭐래?
장물아비 : 별거없어. 소잡는 놈은 개잡아도 개잡는 놈은 소 못잡는다 뭐 그런정도지.
뽀빠이　 : 허 참 그 개새끼.. 골통을 뽀개러 한번 가야되나? (씹던껌을 본다)
씹던껌　 : 왜 날 봐? 나이먹고 빠짝 쫄아서 술이나 쳐먹는 년이래메. 마카오가서도 먹겠지.
애니콜　 : 다들 잘 다녀오세요. 나는 점쟁이가 그러는데 물건너가면 죽는다네.
씹던껌　 : 지랄하네. 오드리 햅번도 죽었는데 니가 왜 못죽니? 그리고 점쟁이말대로 됐으면 내가 결혼 세번 했겠니? 같이 가! 내가 꿈 살테니까.
애니콜　 : 얼마?
씹던껌　 : 삼만원.
애니콜　 : 좋아. 자~ 꿈 가요.
씹던껌　 : 그래 그래.. 꿈 산다.
장물아비 : 마카오박은 세명만 불렀는데. (씹던껌이 돌아보자) 줄타는 팀으로만.
씹던껌　 : (실망하며) 아아~ 그래?
뽀빠이　 : (달력을 본다. 월요일에 표시된 별표) 애니콜! 내일 아침에 안양 좀 갔다와라. 형님은 우리 여권이나 좀 찍어주고.
장물아비 : 펩시는 내년에 나오는거 아냐?
뽀빠이　 : 가석방이래.
애니콜　 : 펩시가 누군데?
뽀빠이　 : (피식 웃으며) 정중히 모셔와. 까불지 말고.

17. 안양교도소. 아침.

차에 기대선 애니콜. 출소하는 여자들속에 펩시가 누굴까 살핀다. 펩시가 애니콜을 지나쳐 다른 대머리 남자에게 간다.

펩시　 : 담배 하나 얻을 수 있겠어요?
대머리 : 아 예.

대머리는 친절히 점퍼로 바람까지 막아주며 불을 붙여준다. 펩시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고는 애니콜이 기대선 차로 걸어간다. 애니콜은 보지도않고 조수석에 탄다.

펩시　 : 안가니?
애니콜 : 저 아세요?
펩시　 : 내가 널 어떻게 아니?

차에 타는 애니콜. 출발한다. 펩시는 자기 헤어스타일이 맘에 안 드는지, 만지작거린다.

애니콜 : 근데 왜 별명이 펩시예요?
펩시 : 톡 쏘는게 성격이 좆같나 부지.
애니콜 : 유명하신 분을 모시니까 이거 참 떨리네.
펩시 : 너 바보니? 우리는 유명해지면 끝이야. (대쉬보드를 뒤지다 선글라스를 낀다)
애니콜 : 역시~ 나오자마자 훔치네요. 제거를. 지금까지 몇군데나 털었어요?
펩시 : 차라리 한강에 자갈 수를 세라.
애니콜 : 뭐 비법같은 거 없어요? 후배한테 한마디 해줄.
펩시 : 이것도 다 자기와의 싸움이지. 왜 웃니?
애니콜 : 아니 세상에 싸울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랑도 싸우면.. 하이구.
펩시 : 너 내가 맘에 안드는구나?
애니콜 : 아닌데. 나는 나이많은 여자랑 잘 맞는데.
펩시 : (획- 째려보며) 난 너 맘에 안든다.
애니콜 : 첨엔 다들 그렇더라구요. (몇번 써먹은 듯 보이는 투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애니콜~ 저기 제 차는 금연이거든요.
펩시 :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째려본다) 차 세워봐.

한판 붙을 분위기다. 펩시가 차에서 내리자, 애니콜도 내린다. 신발을 벗어서 애니콜에게 나긋하게 던지자, 애니콜이 받는다. 차도 옆 잔디밭에 들어가는 펩시. 잔디를 살며시 밟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잔디다. 꽃도 아름답고 하늘도 맑다. 음미하며 공기를 들이마신다. 웬 미친짓인가 싶은 애니콜. 전화가 온다.

애니콜 : 데리고 가긴 하는데... 지금? 몰라. 저 미친년 맨발로 우아떨고 자빠졌네... 알았어 저기요. 시간 없거든요.

펩시가 잔디밭을 걸어나온다.

애니콜 : 신발은요?
펩시 : 버려.

18. 멀티샵.

새 옷으로 갈아입은 펩시. 그 뒤로 새옷을 들고 부루퉁한 얼굴로 뒤따라오는 애니콜.

펩시 : (진열대를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사이즈로 주세요. 너도 하나 골라.
애니콜 : (속삭이며) 저는 돈 주고 물건 안사요.

씽긋이 웃는 펩시. 지갑을 획 던져준다.

펩시 : 계산해.

지갑을 펼쳐보면 펩시가 담배불을 빌린 대머리 남자의 신분증이 보인다.

19. 짓다만 건물. 낮.

씹던껌 : 근데 정서방이 무슨 회사를 만든다고? ... 파이낸싱컨설턴? 그래 건 알았고 그거 돈 많이 버는거니? ... 그럼 됐어. 급한대로 엄마가 이천 쐈다. (술한잔 들이키고 무심코 크으~) 아냐 술먹는 거 아냐 엄마 약먹는 거야. 아이고 쓰다. 나중에 전화할게.

주차장. 애니콜 차가오자 위스키를 얼른 숨기는 씹던껌. 펩시와 뽀빠이가 깊은 포옹을 한다.

뽀빠이 : 아! 여기는 모르지? 씹던껌.
펩시 : 내가 언니를 왜 몰라? 연기파배우로는 완전 전설인데. 안녕하세요.
씹던껌 : 아휴 전설은 무슨. 늙으니까 술 없으면 연기가 안돼.
펩시 : 일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씹던껌 : 그렇게들 들어오라고 전화들을 해대고 그냥.. 뽀빠이도 참.
애니콜 : (들어오며) 어디서 술냄새 나네.
씹던껌 : 딸내미 이혼한다고 지랄해서 술한잔 했다 왜? 남들은 나이들어서 술 한잔 하는게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라도 먹는다는데 참 내
(펩시를 보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 여기서.
뽀빠이 : 여기는 잠파노.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할까.

애니콜이 건물을 올라가는 뽀빠이와 펩시를 눈으로 쫒는다.

씹던껌 : 펩시 재는 아직도 이쁘네.
애니콜 : 이쁘긴. 어마어마한 썅년같애 내가 보기엔. (밖을 보며) 근데 제네들. 연애해?

애니콜이 차키를 가지고 밖을 나간다. 건물 옥상에서 대화하는 뽀빠이와 펩시.

펩시 : 건물 올리고 손턴 줄 알았는데 상태가 왜 이래? 이래서 사장님 소리 듣겠어?
뽀빠이 : 마카오에서 벌어와서 완성해야지. 같이 가자고. 언니도 지갑이 홀쭉하잖아. 그리고 고마워. 경찰에 내 이름 안 불어줘서.

슬그머니 펩시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데, 펩시가 천천히 뽀빠이 손을 푼다.

펩시 : 그 사람이 나도 오래?
뽀빠이 : 아직 감옥에 있는줄 알걸.
펩시 : 가서 마카오박 코나 풀어주고 배당이나 받을거면 안가고. 그인간 대가리쳐서 껍질

까지 벗겨먹을거면 가고.
뽀빠이 :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오.

20. 장물아비 사무실. 낮.

계단을 올라오는 장물아비. 사무실 문을 열려다 윗계단에 애니콜을 보고 깜짝 놀랜다.

장물아비 : 너 여기 왜왔어?
애니콜 : 그저께 미술관 들어갔잖아. 향로만 가지고나오기 섭섭하더라구.
이거 비싼거야?

애니콜이 우표붙은 구한말 봉투를 던져주자, 감탄하다 슬며시 실망하는 척하는 장물아비.

애니콜 : 어 그러지마. 비쌀거 같다는 느낌이 팍 오는데.
장물아비 : 그냥 남이 쓰던 우표구만 십원짜리. 뽀빠이는 모르지?
애니콜 : 당연하지. 얼마 줄거야?
장물아비 : 지금 이천 받을래? 삼개월있다가 사천 받을래?
애니콜 : (우표를 집어넣으며) 됐어.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려야 되겠다.
장물아비 : (도로 뺏으며) 알았어 알았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물아비. 금고로 간다.

애니콜 : 마카오박 얘기나 좀 해봐. 씹던껌 말로는 무슨 깡패 마누라랑 바람나서 아킬레스건이 짤렸다던데.
장물아비 : 그냥 소문이고 야! (금고 다이얼 돌리려다 멈칫) 너 내가 금고 열때 딴데 보고 있어라이.
애니콜 : 근데 뽀빠이 배신했다는 얘긴 뭐야?
장물아비 : 오늘 봤지, 펩시? 그렇게 셋이 한팀이었다고. 너 교복입고 다닐 때 얘기다.
애니콜 : 삼각관계? 어라 왜 이천오백이야? 아저씨 자꾸 그러면 벌 받어.
장물아비 : 오백은 로또로 받어. (로또 세장을 애니콜 손에 쥐어주며) 4년전에 셋이서 금괴 68kg을 털었다고. 근데 고거를 마카오박이 들고 날랐지. 이렇게.

21. 마카오. 카지노. 낮.

카지노전경. 많은 사람들속에 마카오박 뒷모습. 고개를 들고 옆을 보며 카드를 던지면 바카라판에 주변 사람들이 환호한다. 덩치둘을 대동한 지배인이 마카오박 등을 톡톡 친다.

마카오박 : (영) 왜? 너무 많이 땄나?
지배인 : (영) 오일째 아무것도 안먹고 물만 마셨네요.

마카오박 : (영) 걱정마. 안죽어.
지배인 : (영)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구요.

사람들 웅성대고 딜러가 지배인 눈치를 보며 칩을 거두려하자 마카오박이 손을 막는다.

마카오박 : (영) 어이 어이. 이건 내꺼잖아. 또 와야지.
지배인 : (영) 그럴 일 없을거요.
마카오박 : well, you never know.

지배인의 시선을 뒤로하고 걸어나오는 마카오박. 전화기를 꺼낸다.

마카오박 : (중) 미스터 첸? 나 마카오박이요. 일요일에 낚시나 합시다.

22. 홍콩. 보석상. 늦은 오후.

가게 구석의 간이 테이블에 60대 남자가 야식을 먹으며 통화한다. 이 남자가 첸이다.

첸 : (중) 일요일? (밖을 보더니) 잠깐만.. 좋지.

사설경비업체 차량 한 대가 보석상 앞에 멈추고 요원 둘이 내려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50대 여사장이 카운터에서 돈을 세고 있다가 뚱하니 쳐다본다.

요원 1 : (중) 도난경보 떨어져서 왔는데. 경보 울리셨죠?
첸 : (중) 샤오웬! 5분안에 올거라고 빨리 전화하라 그랬잖아.
샤오웬 : (중) (탕비실에서 나오는 여자) 어머 죄송해요. 아까 사장님이 하신다길래...
첸 : (중) 미안해, 내가 잘못 눌렀네. 이런 일 가끔 있지?
요원 1 : (중) 네 뭐, 출동해보면 반은 이런 경우죠. 하하.

가게 안은 평온하다. 구석에 40대 남자 조니가 의자위에서 조명을 갈아끼고 있고 걸레질을 하던 40대 남자 앤드류가 샤오엔 엉덩이를 툭 치며,

앤드류 : (중) 커피 한잔 타와봐. (요원들에게) 커피? 커피?
요원 1 : (중) 됐구요. 화장실이나 좀 쓸 수 있을까요?
앤드류 : (중) 예. 이 뒤에.

요원1이 화장실로 가는데, 샤오웬이 찻잔에 설탕을 타는 손이 덜덜 떨린다. 노래를 흥얼거리는 앤드류가 요원1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걸레를 물통옆에 놓는데, 허리춤에 권총.

조니 : (중) 진짜 딱 오분 걸리네.
요원 2 : (중) 확실하죠 우린. (무전에 응답하며) 실수로 눌렀다네요. 별일없구요...예!

여사장이 요원2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데, 요원2가 눈치없이 싱긋 웃더니 사인하라며 출동확인서를 내민다. 여사장이 사인하며 힐긋 보면, 그릇을 비운 첸이 미소짓는다. 그의 책상위엔 신문지로 덮여있는 총이 보인다. 샤오웬이 화장지에 '강도'라고 쓰고는 커피잔 밑에 깐다. 화장실에서 나온 요원1이 샤오웬의 커피를 받더니 마신다. 찻잔밑에 깔린 화장지 위에 글씨를 본 앤드류. 당황하는가 싶더니, 기침을 한다. 바람에 날아가는 화장지.

요원 2 : (중) 철수합시다.
요원 1 : (중) 본부랑 통화했어?
요원 2 : (중) 응.

요원들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샤오웬. 조니가 빠르게 현찰을 쓸어담고, 앤드류가 총을 꺼내 샤오웬을 겨눈다.

앤드류 : (중) 이쁘게 생겨갖고 나쁜짓만 배워서 이게 어딜 쏴줄까? 응? 여기? 여기?
첸 : (중) 너 함부로 총 뽑지말라고 그랬지. (보석 담는 조니에게) 됐어. 무조건 현찰.

첸이 시시티비 레코더에서 디스크를 뽑아든다.

앤드류 : (같이 현찰 담으며, 중) 근데 마카오갈 때 여자애 하나 낀다며? 이쁠까?
조니 : (중) 너보다는 이쁘겠지.
앤드류 : (중) 하~ 나이가 어려야될텐데.
첸 : (중) (나가며, 전화를 건다) 여자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다.

23. 호텔 방. 줄리거처. 밤.

창밖엔 네온사인이 반짝거린다.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는 줄리. 전화벨이 울리자, 손만 뻗어 스피커폰으로 받는다.

첸 : (중) 5분후에 주차장으로 나와.
줄리 : (중) 내려갈게.

침대밑에서 연장 박스를 꺼내고는 옷을 입는 줄리. 침대옆 의자에 남자가 앉아있다. 그 남자가 총을 내민다.

줄리 : (중) 필요없어요 그런거. 도청장치는요?
남자 : (중) 여기.

작은 도청장치와 엠피3. 확인하고 챙기는 줄리.

남자　: (중) 몸조심해.
줄리　: (중) 내가 나가면 불이나 꺼줘요.

24. 옥상주차장. 홍콩. 밤.

앤드류 : (중) 근데 한국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마카오박도 한국놈이고.
조니　: (중) 그렇지. 첸형은 같이 일한적도 있대며.
첸　: (중) ... 그런 적이 있었지. 저기 오네.

줄리가 걸어오자, 앤드류 얼굴이 환해진다.

앤드류 : (중) 캬~ 나는 저런 애 볼 때마다 신은 있구나 싶어. 몇 살일까?
조니　: (이미 안다는 듯, 중) 너보다 다섯 살 어려.

조니가 돌아서고, 첸과 줄리는 악수한다.

첸　: (중) 오랜만이네.
줄리　: (중) 첸형 얼굴 좋네. 한국애들은 언제 와?
첸　: (중) 일요일.

앤드류가 악수할 준비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차에 타는 줄리.

25. 홍콩. 낮.

홍콩섬을 운행하는 트램. 그 안에 한국 도둑들. 애니콜이 신기한 듯 거리를 내다본다.

애니콜 : 역시 홍콩! 야 잠파노. 벌써부터 범죄의 냄새가 나지않냐?
잠파노 : 한국은 아직 멀었지.

화려한 거리를 지나 점점 도심외곽으로 향한다. 약속장소가 적힌 메모를 보는 뽀빠이.

26. 홍콩. 낮.

낡고 비좁은 주택가. 약속장소가 적힌 메모를 보며 노천카페로 들어서는 첸 일행. 이미 도착한 뽀빠이팀과 침묵의 눈싸움을 한다.

잠파노 : 씨발놈들 인상 드러운데요.
뽀빠이 :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뙤놈이 챙긴다는 말이 있어. 조심해야돼.

중국 테이블. 한국인들을 살피는 줄리의 눈빛.

조니　: (중) 째려보는데 저것들이.
앤드류 : (중) 그래도 역시 여자들은 한국이 이쁘지?
조니　: (중) 응.
줄리　: (중) 딱 보니까 성형했네. 한국여자들은 다 한다던대.
앤드류 : (중) 어디 간 좀 볼까요. (일어난다)
첸　　: (중) 앤드류!
앤드류 : (중) 살살 할게요 살살. 초장에 기를 죽여놔야지.

손가락으로 스윽 머리를 쓸어넘기고 애니콜에게 다가가는 앤드류. 차를 따라준다.

앤드류 : (중) 고거 삼삼하게 잘빠졌네. 너 성형수술 했냐? 흐흐...
애니콜 : 이거 머리큰 놈이 뭐래는 거야?
앤드류 : (중) 내가 원래 한국애들은 안믿는데 널 보니까 오빠가 마음을 열고싶다.
잠파노 : (중) 꺼져 이자식아.
앤드류 : (중) 뭐라고?
애니콜 : (놀라서 잠파노에게) 너 중국말 할 줄 아니?
뽀빠이 : 화교야 쟤.
애니콜 : 뭐래?
잠파노 : 너 성형수술 했냐고.
애니콜 : 이 시발새끼가.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애니콜이 벌떡 일어나자 화내는 모습도 이쁘다는 듯 손가락질 하는 앤드류.

잠파노 : (중) (앤드류 손을 낚아채며) 조용히 기다리자고 임마. 죽고 싶어?
앤드류 : (중) 이 개새끼가... 너 지금 잡았냐 나를 하~ 요놈 봐라.
뽀빠이 : 그만해!

순간 앤드류가 권총을 꺼내 잠파노의 배를 겨냥한다. 양 테이블 멤버들이 우당탕 일어난다.

첸　　: (중) 내려놔! 앤드류!
뽀빠이 : 전부 움직이지마! 가만있어!

긴장속에 앤드류를 노려보는 잠파노. 씽긋이 웃는 앤드류. 뽀빠이가 양손을 치켜들고 천천히 다가간다. 첸도 천천히 다가가 앤드류 멱살을 푼다. 총을 빙그르 돌리며 뒷춤에 집어넣고는 중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앤드류가 애니콜에게 윙크를 하는데, 순간, 애니콜이 테이블의 찻잔을 집어 앤드류 얼굴에 확 끼얹는다.

앤드류 : (갑자기 한국어로) 앗 뜨거!! 이거봐 하 씨바 얼굴껍닥 다 벗겨졌네. 흐억~ 얼음

없어? 소주? 소주?
잠파노 : 괜찮네.
앤드류 : 아 그래? 괜찮아 보여?

앤드류 손을 탁 치고 나가버리는 애니콜. 앤드류가 찬물을 얼굴에 붓는다. 보일 듯 말듯 미소 짓는 줄리. 첸이 다들 앉으라고 하며,

첸 : (중)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첸이라고 합니다. 중국속담에 옥에도 티가 있고 좋은 일엔 탈도 많다고 (미중부족 호사다마 美中不足 好事多魔) 예감이 좋습니다.
뽀빠이 : 우리도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층에 올라온 애니콜.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얇은 에쎄 멘솔. 라이타를 찾아 주머니를 뒤지는데 성냥불 든 손이 불쑥 들어온다. 애니콜이 보면, 흐트러진 매무새로 작은 소파에 걸터앉은 남자. 마카오박이다.

마카오박 : 뽀빠이랑 같이 왔나?

애니콜이 성냥불에 담배를 붙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술 한잔을 털어 넣는 마카오박에게 다가가는 애니콜.

애니콜 : 아저씨가 마카오박이예요?
마카오박 : 아직도 뽀빠이는 내가 만들어준 와이어 쓰나?
애니콜 :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피식 웃다가 덥석 애니콜 다리를 만지는 마카오박. 멍든 무릅을 쓰다듬는다.

마카오박 : 너 줄타는 애구나.
애니콜 :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마카오박 : 여자는 머리는 길고 치마는 짧아야지. 내려갈까.

마카오박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데, 술에 취해 휘청이자 애니콜이 잡아준다. 가방은 애니콜에게 주고, 술병만 들고 내려가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중) 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박수는 생략하시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하는일도 없는 놈이 바쁘네요. 상견례는 다 하셨을테니까 얼굴들은 차차 알아가고.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전문가들이죠. (중) 전문가.

술을 들이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다가 탁자에 놓인 담배와 라이타를 집어들더니 불 붙이고는 자연스럽게 라이타는 주머니에 넣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중) 첸형 오랜만입니다. (한) 어 뽀빠이도.

슬쩍 뽀빠이 어깨에 손을 얹자 뽀빠이가 가볍게 그 손을 털어낸다.

마카오박 : (한)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야 뭐 싸구려 도둑이니 뭐 제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중)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뽀빠이 어깨를 툭툭 치며) 첸형! 총은?

첸이 눈짓하자 총가방을 여는 조니와 앤드류. 인상을 찡그리며 안을 보더니, 뒤적뒤적. 권총 세 개를 꺼내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중) 무거워. 이것만 가져갑시다. 장소와 목표를 얘기해줘야지. 장소는.. 마카오 베네시안...
애니콜 : (잠파노에게) 우리 카지노 터는거야?
앤드류 : 미쳤구만. (잠시후 중국어로) 미쳤구만.

카지노 얘기에 수군거리는 도둑을 본체만체, 가져온 가방을 열려고 애쓰는 마카오박. 눈이 흐릿한지 술에 취한건지 가방이 안 열리자 줄리가 가볍게 연다.

마카오박 : (중) 이름이?
줄리 : 줄리!
마카오박 : 이쁘네. 굳!

마카오박이 신문 몇장과 태블릿피시를 꺼내 돌리고는 자랑스럽게 술을 들이킨다.

마카오박 : 목표는 태양의 눈물. 사백십팔 캐럿 짜리 다이아몬드.

신문에는, 1856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블루 다이아몬드 원석이 유럽 왕실로 가다! 2차 대전중 사라진 다이아! 1997년 소더비 경매장에서 조화로운 세쌍의 다이아 최고낙찰가 420억 화재! 2007년 도난! 등등에 관한 오래된 중국신문 스크랩이다. 태블릿피시에는, 푸른 빛을 띄는 다이아가 화면에 떠있다. 다이아 판매상으로 보이는 중국인 중년남자 사진.

뽀빠이 : 누구야 이사람은?
마카오박 : 니가 미행해야 되는 사람. (잠파노를 가리키며) 줄은 니가 땡기냐?
잠파노 : 반말 하지마시구요. 제 라이타 주세요.
마카오박 : 쏘리! 니네 대장건줄 알고. (라이터 주며, 뽀빠이에게) 많이 컸네. 팀원도 있고.
뽀빠이 : 어! 그래서 나머지 두명도 데려왔어.

잠파노가 옆문을 열자 차를 마시고 있던 펩시와 씹던껌. 펩시를 보고는 잠깐 멈칫. 불현듯, 햇빛 가득한 침대. 누워있는 펩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지나간다.

펩시 : 많이 변했네?
마카오박 : (그냥 웃다가, 씹던껌한테) 술은 끊었어요?

썹던껌　: 아휴 입에도 안대.
마카오박 : (선글라스 쓰고는, 뽀빠이에게) 잠깐 얘기 좀 할까.

옆방으로 건너온 마카오박과 뽀빠이.

뽀빠이　: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우린 다 철수야.
마카오박 : 펩시는 뭐하러 데려왔어?
뽀빠이　: 금고 여셔야지. 두 개라는데 저 중국여자로 되겠어?
마카오박 : 금고는 니가 열어. (뽀빠이 손을 움켜쥐더니) 아직도 손이 축축하구나 너는.
뽀빠이　: 우리가 서로 손잡을 사이는 아닌데.

그대로 마카오박 안면을 날리는 뽀빠이. 선글라스가 박살난다. 두 번째 주먹을 살짝 피하며 뽀빠이를 벽에 미는 마카오박. 뽀빠이 손이 벽에 부딪치며 꺾인다.

뽀빠이　: (자기 손을 가리키며) 어허허허 이것 참. 금고를 열어야되는데 손이 다쳐버렸네.
마카오박 : 여전히 연기는 안되는구나. 썹던껌은 일본어가 되니까 놔두고. 펩시는 보내.

무섭게 뽀빠이를 노려보다 피식 웃는 마카오박.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활짝 웃는다.

마카오박 : (중)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첸　　　: (중) 이 남자. (태블릿피시속의 남자를 보여주며) 혹시 쿵지사장 아냐?
마카오박 : (중) 맞아요.
첸　　　: (중) 이 사람 웨이홍 직속인데.. 그럼 우리가 웨이홍 다이아를 터는건가?
마카오박 : (중) 그럼요.
뽀빠이　: 웨이홍?
앤드류　: (중) 이러다 우리 좆되는 거 아냐?
조니　　: (중) 난 빠지고싶다 이럴땐.
잠파노　: 웨이홍이 누군데?
앤드류　: 무기. 마약. 문화재. 돈되는건 다하는데 너무 잔인해서 삼합회도 안 건드리거든. 근데 아무도 정체를 몰라. 얼굴 뭐 국적 이런거. 손등에 붉은나비 문신 있다는 소문만 있고.
애니콜　: 그래서 뭐? 성공하면 되잖아. 성공확률이 몇프로예요?
마카오박 : 한 40%?
애니콜　: 예?
마카오박 : 내말대로 따라주면 60%?
줄리　　: (중) 그 정보 어디서 얻은거예요?
마카오박 : 출처라...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누른다)
뽀빠이　: 분배는?
마카오박 : (중국팀 가리키며) 30 (한국팀) 30 (자기) 40. (핸드폰으로, 영) 사모님!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 ,

태블릿피시에 쿵지와 같이 찍은 여인의 사진이 뜬다.

(경과)

도착하는 롤스로이스. 태블릿피시 사진속에 사모님이 차에서 내린다.

마카오박 : (중) 아! 오셨네. 쿵지가 마카오에 다이아를 팔러와요. 웨이홍 대신.
첸 : (중) 쿵지 사장이면 카지노 단골손님일텐데 다이아는 카지노 금고에 보관하고?
마카오박 : 카지노에는 금고실이 2갠데 제일 큰 게 지하에 있고 거긴 매장에서 번 돈이 모이는 곳이라 문도 이중이고 청소도 직원들이 하고 음식도 지정된 사람이 배달하고. 직원이라도 들어오고 나갈때 몸수색을 하죠. 몸수색을 하는 직원은 시시티비가 감시하구요.

-마카오박 말에 맞춰, 이중문이 열리면 음식배달 수레를 밀고가는 초로의 노인. 발을 전다. 배달 수레를 인계받는 직원을 따라가며 보여지는 금고실. 돈 세는 직원. 감시하는 직원. 객장을 비춘 시시티비. 이때, 돈 세는 직원이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매니저가 보면, 직원이 손을 머리위로 들고 '클리어'라고 외친후 바닥 돈을 주워 탁자에 놓고 다시 '클리어'한다.

첸 : (중) 다른 하나는?
마카오박 : 30층 스위트룸. 쿵지는 다이아를 거기에 보관할겁니다.

카페로 들어오는 사모님. 겉옷을 받아주는 마카오박. 다들 그 여인을 바라보는데, 시간없다는 듯, 재빨리 얘기한다.

사모님 : (영) 원래 쿵지는 30층 스위트룸에만 묵어요. 왜냐면 그방엔 금고가 두 개나 있고 카지노쪽에서 열영상감지기로 전 층을 감시해주죠. 스위트룸문이야 열긴 쉬운데 안쪽에 자기장인지 뭔지로 봉해놓거예요. 회장이 4년전에 심장수술 했는데 심장에 붙여논 전자장치랑 연동이 되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못들어가요. 그래도 이사람들은 들어가겠죠? 기적같이?

사모님이 마카오박손을 잡자, 그 손을 쓰다듬는 마카오박. 과거에 찐하게 만난 느낌이다.

마카오박 : (영) 그럼요. 기적이 우리 전공입니다.
줄리 : (영) 우리가 훔치면 당신이 돈을 주나?
사모님 : (영) 팔아야지. 유에스달라로 이천만불에.
애니콜 : 와우.
앤드류 : 좆도 시발.
줄리 : (돌아보며) 누가 그 큰 돈을 줘요? 장물아비라도 끽해야 천만불이겠지.
마카오박 : (주머니에서 꺼낸 수첩을 펼치며) 여기있지. 동남아 장물아비들 명단이. 가만있어보자... 말레이시아 분형탄. 싱가폴에 위청. 홍콩에 웨이홍.
첸 : (중) 다시 웨이홍한테 팔거지?

마카오박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첸도 가볍게 웃는다.

사모님 : (영) 회의는 저 가고 나서 하시고. 아! 숙소는 위를 쓰시고 금고에 있는 돈은 그냥 가져도 되요.
마카오박 : (옷 입혀주며, 중) 비행기 시간 안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카오박이 사모님 옷을 입혀주는 걸 문가에 서서 훑어보는 펩시.

펩시 : (영) 당신 정체가 뭐야?
사모님 : (영) 쿵지가 내 남편이예요.
펩시 : (마카오박에게) 저 여자랑 바람피는거야?

마카오박이 글쎄.. 하는 표정으로 사모님과 나가자,

씹던껌 : 나는 남으라는데 자긴 어떡하냐? 갈거야 한국으로?
펩시 : 저요? 아뇨.
씹던껌 : 그래 개기는거야 인생. (위스키 꺼내며) 자! 건배한번 합시다. 야! 조선족! 너 가서 술잔 좀 챙겨.
애니콜 : (잠파노에게) 봐봐. 삼십프로를 나누기 5하면 13억9천. 근데 나누기 4. 펩시 한국가면 17억4천 호~
씹던껌 : 다섯명이니까 5로 나눠야지.
애니콜 : 저년끼면 앉은자리에서 3억5천 날라가는데. (펩시가 다가오자, 방긋거리며) 언니! 이별주 해야죠. 건배! 건배!
마카오박 : (들어오며, 중) 건배? 좋지! (첸에게) 한마디 하시죠.
첸 : (중) 돈 받으러 누가 가나?
마카오박 : 첸형하고 뽀빠이. 나.
뽀빠이 : 좋아. 건배.
마카오박 : (뽀빠이에게 키를 주며) 넌 펩시랑 같은 방 쓰면 되겠네.

펩시가 마카오박 시선에 고개를 돌린다.

씹던껌 : 파도!
앤드류 : 누가 위스키로 파도 타? 내일아침에 죽을라고.
첸 : (중) 술잔앞에서 내일 일을 논하지 마라. 파도!

다들 잔을 비우는데, 도청장치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 끼는 줄리. 술이 쓰다는 듯 잔을 내려놓다가 마카오박을 툭 치며 양복 주머니에 도청장치를 넣는다.

27. 숙소앞 도로. 밤.

혼자서 차에 타는 줄리. 엠피쓰리를 꺼내 버튼을 누르자, 복도를 걷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줄리가 미소 지으며 볼륨을 키운다. 술 따르는 소리. 음악 소리.

28. 마카오박 방. 저녁.

볼륨을 올리고 술을 마시는 마카오박. 불현듯 마카오박을 스쳐가는 펩시. 따뜻한 햇살. 마카오박 손길에 돌아보는 펩시. 웃음. 예전 생각이 간헐적으로 그의 얼굴위로 스쳐간다.

29. 마카오박의 회상. 서울.

-1. 성당.
예배중. 조는 마카오박. 툭 치는 펩시. 힐긋 옆쪽을 보면, 근엄한 중년사내가 보인다.

마카오박 : 아까 진짜로 기도하던데.
펩시 : 오늘 저녁에 금괴 털면 우리 같이 손털게 해달라고. 약속했잖아?
마카오박 : 내가 그랬나?

예배가 끝나는지 일어나는 중년사내. 재빨리 펩시가 지갑을 꺼내 마카오박에게 주자, 카드키를 꺼내 중년사내를 툭 치며 도로 넣고는 미안하다는 웃음을 짓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누구나 다 뭔가는 훔쳐. 안그런 사람은 없어.
펩시 : 직업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아저씨야.
마카오박 : 아 그렇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 훔칠게.
펩시 : 나?
마카오박 : 거긴 이미 훔쳤고.

-2. 아쿠아리움.
상어가 천정을 지나간다.

펩시 : 상어? 이런걸 훔쳐서 뭐하게?
마카오박 : 놔줘야지. 이런놈이 바다에 있어야지. 어항속에 있으면 되나.

말도 안된다는 듯 마카오박 어깨를 치는 펩시. 진심을 몰라주네 이 여자가.. 웃는 마카오박.

30. 애니콜과 펩시 방. 저녁.

창밖에 마카오박 방을 보는 펩시. 애니콜이 잠옷바람으로 창밖을 넘겨보더니,

애니콜 : 벗고 다니면 다 보이겠네. 근데 언니는 뭐든지 다 딴다면서요? 틈새가 없어도요.
펩시　 : 어떤 집이든 오래되면 비가 세는 법이야.
애니콜 : 그럼 이것 좀 따줄래요?

애니콜이 펩시에게 와인병을 내민다. 요년봐라? 펩시가 보자,

애니콜 : 아우 나 참 모기잡는데 도끼쓰자 그랬네 눈치없이. 씹던껌 방가서 빌려야지.

애니콜 나가자, 짐을 푸는 펩시. 귀걸이를 벗다가 창밖을 본다.

31. 펩시의 과거회상.

-1. 건물안. 밤.
어두운 문. 딸깍 소리 들리고, 문 열리면 성당에서 훔친 카드키를 구멍에서 빼내는 손. 더듬더듬 전등스위치를 켠다. 문열고 들어오는 베낭 멘 마카오박과 펩시. 4년전 모습이다. 엘리베이터 통로에 선 둘. 위와 밑은 아득한 어둠이다. 무전 날리는 펩시.

펩시　 : 혼자 뭐해? 우리 다 왔어. 내려.
뽀빠이 : 마카오박거부터 간다. 서둘러. 순찰차 왔다갔다해.

-2. 건물밖. 공사장. 밤.
공사장 미니크레인에 앉아서 레바를 준비하는 뽀빠이.

-3. 건물안. 밤.
와이어가 내려오자, 펩시가 멘 베낭을 뺏더니 다른 어깨로 매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잠깐만.

펩시 턱을 당겨 키스한다. 지그시 바라 보는게 할 말을 참는 듯.

펩시　　 : 책임져.
마카오박 : 무슨 책임?
펩시　　 : 여자마음을 흔든 책임.
마카오박 : 푸하하~ 흔들린 사람이 멈춰야지. (무전기에) 내려.

어둠속으로 내려가는 마카오박. 펩시도 자신의 와이어를 준비하는데,

-4. 건물밖. 공사장. 밤.
뽀빠이가 와이어를 감다가,

뽀빠이 : 잠깐 뭐가 이상한데.

-5. 건물안. 밤.
펩시가 왜?라고 말할려는 찰나, 마카오박의 비명소리와 함께 잘린 와이어가 솟구치며 펩시 얼굴쪽으로 튕겨 올라온다. 펩시의 비명.

-6. 건물밖. 공사장. 밤.
뽀빠이한테 무전이 날아온다. '마카오박 떨어졌어!'

뽀빠이 : 일단 가만있어 내가 갈게
펩시　 : 내려가야 돼
뽀빠이 : 안돼. 경보 울려.

공사장을 다시 돌아오는 순찰차. 그리고 경보소리.

-7. 건물안. 밤.
문을 열고 나가는 펩시. 경보소리. 마카오박이 떨어진 어둠속이 시커멓다.

-8. 펩시 집. 낮.
엉망인 모습의 펩시. 뽀빠이가 음식을 들고 들어온다. 그간 가져다준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는지 그대로다.

펩시　 : 어떻게 됐어? 경찰이 찾았대?
뽀빠이 : 아니.
펩시　 : 안 잡힌거네? 어휴~ 그럴 줄 알았어. (멈칫) 근데 왜 연락이 없지?
뽀빠이 : 연락 안하겠지. 금괴 68kg이면 30억이야.
펩시　 : 무슨 소리야?
뽀빠이 : 왜 언니가방까지 자기가 맸겠어?
펩시　 : (피식~) 올거야. 아직 삼일밖에 안됐잖아
뽀빠이 : 삼일이나 됐잖아.

불안한 예감의 펩시. 키스. 어둠속으로 내려가는 마카오박의 웃음이 떠오른다.

-9. 뽀빠이 사무실. 비오는 밤.

장물아비와 금괴 내놓은 소식이 있는지 얘기중이던 뽀빠이. 문이 열리면, 잔뜩 비를 맞고 온 펩시가 힘겹게 벽에 기대선다. 젖은 머리. 천천히 드는 고개. 젖은 발. 애써 짓는 미소도 불안하다. 장물아비가 분위기 파악하고 나간다.

장물아비 : 얼굴 펴. 아직 보름밖에 안됐잖아.

뽀빠이 : 술마셨구나.
펩시 : 이제 알겠어.
뽀빠이 : 뭘?
펩시 : 그 사람 안와.

펩시가 비틀거리더니 몸이 무너져 내린다. 뽀빠이가 펩시를 안는다.

뽀빠이 : 나 자고 갈까?

펩시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뽀빠이도 조용히 문을 닫는다.

32. 펩시 방. 현재. 마카오. 밤.

전장면에서 디졸브되면 방안에 펩시. 담배를 물다가 라이타가 안켜지자 신경질적으로 라이타를 던지고는 와인을 든다. 딸게 없다. 애니콜 운동화에 와인을 끼우고 벽에 두어번 밀어치자, 와인을 쏟아내며 빠지는 코르크. 와인을 한잔 마시고는, 문을 나간다.

33. 마카오박 방. 밤.

노크하는 펩시. 여자가 열어준다.

펩시 : (영) 어머. 죄송해요.
마카오박 : (한) 아 형님이요? 나죠 누군줄 알았나 허허허... 방이야 형님이 알아서 두 개 잡아놓으면 되고.. 전망은 무조건 좋아야죠. 밖에 뭐가 보인다구요? 항구? 시끄럽겠구만. 허허.

문틈으로 보이는 마카오박. 안락의자에 누워 여자한테 손안마 받으며 전화를 끊는다.

마카오박 : 애네 한국말 몰라. 들어와. 가석방됐다고?
펩시 : 응. 근데 내가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현관에 발 한쪽을 걸치고는 방을 둘러보는 펩시. 문 열어준 여자는 마카오박에게 아로마 테라피를 계속 한다.

마카오박 : 여기보다 한국이 좋잖아. 아직 어리숙하고. 훔칠거 많고.
펩시 : 왜 이러시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날릴 줄 알았는데.
마카오박 :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게 없는데.
펩시 : 그래? 그럼 금괴는?
마카오박 : 옛날에 금괴를 내가 갖고 날랐다? 도둑인데 그게 죈가?

펩시　　: (적당한 말을 찾지못하다가) 그때는 나는.. 우리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마카오박 : 우리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잖아. (중) 고마웠어. 둘 다.

마카오박이 일어나자 마사지여자가 어깨에 놓인 수건을 벗겨 얼굴을 닦아주자 가벼운 키스로 응대한다. 지갑에 돈을 확인하다가, 열쇠로 가방을 열려는 마카오박.

펩시　　: 내가 금고를 못 열거라고 했다며?
마카오박 : 이걸 5초만에 열면 끼고.

마카오박이 자물쇠에 들어간 열쇠대가리를 부러뜨린다.

펩시　: 3초.

칼을 꺼내더니, 가방 옆구리를 죽- 찢는 펩시. 그 안에 돈을 꺼내더니, 세지도 않고 뭉텅이로 마사지 여자들에게 건내자, 마카오박이 다시 뺏고는 펩시를 잡는다.

마카오박 : 반칙이야.
펩시　　: 왜? 도둑인데 그게 뭔가? 그리고 어깨에 손 올리지마 재수없어.

펩시가 무릎으로 마카오박 낭심을 걷어차자, 급히 손으로 막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어~ 어~ 여긴 안돼지.

나가는 펩시. 결국 저 여자도 끼는건가? 엷은 미소가 번지다가 곧 사라지는 마카오박. 그 얼굴위로 디졸브되면, 건물을 나서서 길을 건너는 펩시 모습.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34. 펩시방. 밤.

방에 들어온 펩시. 방을 살피고, 화장실을 열어본다. 아무도 없다. 뽀빠이가 들어온다.

펩시　: 문 닫아.
뽀빠이 : 가져왔어?
펩시　: 정들면 어쩌나 걱정하고 갔더니 사람 독종 만들어주네.

펩시가 마카오박이 보여줬던 동남아 장물아비목록 수첩을 들어 보인다.

뽀빠이 : 오케이. 우리가 먹는거야 그 다이아.
펩시　: 똑같은 게 준비될까?

뽀빠이가 베란다턱에 서서 건너편을 본다. 피식 웃고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방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그 뒷편 화분뒤에 서서 듣고있는 애니콜.

뽀빠이 : 당연하지. (핸드폰 꺼내 버튼을 누른다)
펩시 : 거기 와인 좀.
뽀빠이 : 어 난데.. 태양의 눈물이라고 알아?

베란다 탁자위에 있는 와인병. 뽀빠이가 걸어오자 긴장된 애니콜. 천천히 그러나 가뿐하게 옆 베란다로 옮겨가며 넘어지는 화분을 겨우 잡는순간, 뽀빠이가 와인병을 가져간다.

-인터컷. 서울. 장물아비 사무실.
장물아비 : 그거야 원체 유명하니까.
뽀빠이 : 하나 뜰려면 얼마나 걸려?
장물아비 : 지르코니아나 뭐 큐빅으로 하면 삼일이면 떡을 치는데 돈이 문제지.
뽀빠이 : 이천 줄테니까 하나 떠서 마카오로 보내. (전화 끊으며)

옆 베란다로 온 애니콜. 방을 보면 잠파노가 티비를 보고있다. 애니콜이 들어가자, 잠파노가 벌떡 일어나자, 잠파노 엉덩이를 톡톡 치며,

애니콜 : 우리 새끼. 딸딸이 치나 보러왔다 누나가.

갑자기 애니콜에게 키스하는 잠파노. 눈을 뜬채 와인따개를 집는 애니콜. 키스 끝나자,

애니콜 : 보통 여자들은 여기서 굉장히 당황했을거야. 나야 어릴때부터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주거든. 근데 너 이새끼 키스할 때 입술에 힘 좀 주지 마라.

복도를 지나쳐, 문손잡이 잡더니, 표정 바꾸고, 펩시방으로 들어간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펩시가 애니콜에게 와인잔을 들어보인다.

펩시 : 땄다 이거.
애니콜 : 아~ 꼭 비싸고 좋은 건 둘만 먹을라 그래?
뽀빠이 : 수컷은 빠져줘야지. 잘들 마셔.

방문을 닫고 나오는 뽀빠이. 춤추듯 섀도우 복싱을 하며 활기에 넘친다.

뽀빠이 : 마카오박 너 좆됐구나 새끼.

35. 뽀빠이 회상.

-1. 뽀빠이 사무실.
완강기 와이어를 감고 있는 뽀빠이. 작업복을 입으며, 서로 입에 피자를 넣어주는 마카오박

과 펩시. 뽀빠이가 조용히 서랍속에 니퍼를 꺼낸다. 니퍼를 누르자 꾹 찝히는 와이어. 반쯤 잘린다. 펩시가 다가오자, 조용히 묻는다.

뽀빠이 : 관두면 둘이 결혼하는거야?
펩시 : (소근거리며) 그것까진 아직 모르고.
(큰소리로) 아휴 우리 뽀빠이 심심해서 어떡해.

장난치듯 뽀빠이 목을 조이는 펩시. 뽀빠이도 웃는다. 마카오박이 다가오며,

마카오박 : 좋지 뭐. 이제부터 독식인데.
뽀빠이 : 오늘은 특히 조심해. 경찰서랑 가까운 건물이니까.
펩시 : 오래 안기다리게 해줄게. 새벽에 축구봐야 된데.

펩시가 피자 한쪽을 뽀빠이 입에 넣어준다. 뽀빠이가 우적우적 먹는다.

-2. 건물 밖.
무전기에서 들리는 펩시 비명소리. 천천히 무전기를 집어들고는 다급하게 소리치는 뽀빠이.

뽀빠이 : (다급하게) 왜그래?
펩시 : 마카오박 떨어졌어. 내려가볼게.
뽀빠이 : 안돼 경보 울려! 내가 갈게. 금괴는?
펩시 : 마카오박이 다 들고 내려갔는데.
뽀빠이 : 이런 씨~ 하필 이럴때 경찰이... (무전기에) 경찰 들어간다. 일단 빨리 나와

36.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길.

마카오로 가는 배안에 뽀빠이. 창밖을 보는데, 애니콜이 서류봉투를 던진다. 이게 뭐지?

애니콜 : (마카오박을 가리키며) 읽어보래.

애니콜이 다른 도둑들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한다. 씹던껌은 봉투는 본체만체, 잘 정리된 약통에서 꺼낸 비타민제 열알을 삼키는데, 약 두어개가 걸렸는지 콜록이자 첸이 차를 건네다.

첸 : (영) 어제 건배! 멋있었어요.
씹던껌 : 멋있기는 뭐.. (영) 유 투.
첸 : (영) 나는 첸이예요.
씹던껌 : (영) 리! 미스리.
첸 : 미스?
씹던껌 : 허스밴드 다이! 오케이?
첸 : 아~.

앤드류. 앉고보니 잠파노 옆이다. 서류를 꼬깃꼬깃 접는 앤드류. 불안해 보인다.

앤드류 : (혼잣말) 일주일이면 끝난다. 일주일.
잠파노 : 혹시 총 갖고 탔냐?
앤드류 : 미쳤냐? 쪽배로 보냈지. (계속 서류를 접으며) 아가야. 잘 봐라. 후~이제 시작이다.

멀리 마카오가 보인다. 마카오박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벗어놓은 마카오박 양복 주머니에 수첩을 찔러넣는 펩시. 곧이어 시내가 펼쳐지고, 높은 카지노건물이 드러난다.

37. 창고. 아침.

카지노가 보이는 창을 닫는 마카오박. 도둑들이 서류를 읽거나 자기 앞에 박스를 뜯는다.

조니 : (박스를 뜯고는, 중) 핸드폰이 삼성거야? 겔럭시S? 씨바.
잠파노 : (중) 왜 한국거라 싫어?
조니 : (중) 저번주에 샀거든 홍콩에서. 얘랑같이.
앤드류 : (중) 다행히 색깔은 다르다.
마카오박 : 이제부턴 모두 이 전화를 씁니다. 한꺼번에 연결되니까.
앤드류 : 잠깐만 지갑 없어졌어. (중) 하~ 나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누구야? (한) 야~ 한국동포들 진짜 앞뒤 안 가리는구나. 그냥 툭 치고 빼가네. 누구냐고? 에이 씨발 도둑놈들하고 일 할라니까 불안불안하네.

조니가 의자 등받이 사이에 껴있는 지갑을 조용히 집어 건넨다.

애니콜 : 야! 벌써부터 긴장되냐? 심장이 옷밖에서 뛰는구만 쫄아서.
앤드류 : (지갑안에 돈 확인하며) 벅차올라서 그런다. 돈 벌 생각에.

첸이 씹던껌과 종이를 보고 서로 바라보더니,

씹던껌 : 저기... 우리가 부부인거야? 일본?
마카오박 : 싫으세요?
씹던껌 : 아이 뭐 싫어도 해야지. (일) 저 오사카에서 3년 살았어요.
첸 : (일) 나는 동경에서 1년.

38. 카지노. 브이아이피룸

카지노로 멋있게 입장하는 첸. 씹던껌. VIP룸에 들어오자마자, 엔화를 잔뜩 바꾼다.

마카오박 : 첫째, 지정석 확보!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 붓습니다.

뱅커에 칩을 거는 첸과 씹던껌. 맞은편에 앉아있는 조니. 플레이어에 건다.

마카오박 : 조니는 반드시 첸이나 씹던껌이 거는곳과는 반대로 비슷한 돈을 배팅하세요. 그래야 최소 본전은 하니까.

씹던껌이 패를 쪼다가 던지면 환호성! 조니가 조용히 칩을 만지작거리며 화를 삭인다.

마카오박 : 둘째, 지형파악! 건물안에 구조,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전화받는 척 룸을 나오는 조니. 그 옆으로 앤드류. 뒤쪽 코너의 복도로 접어들면 staff only 라고 써있는 문앞에 경비가 다가와 막아서자 길을 잘못들었다는 듯 물러서는데 조니가 경비원에게 여기 베이징덕 먹을 식당이 어디있는지 묻는다. 이때, 다리를 저는 구부정한 노인 한명이 음식 카트를 밀고 통제실로 들어간다.

경비 : (중) 휴가 갔다왔다면서요? 오늘은 뭐가 맛있나?
노인 : (중) 소룡포. 니껀 고기 안넣었다. 아버지 퇴원하셨냐?
경비 : (중) 예. 베이징 덕은 내려가시면 됩니다.

경비가 노인의 음식카트만 통제실로 들여보내는 사이, 앤드류가 신발끈을 매며 훔쳐본다. 경비 둘이 안에서 문을 닫는다. 바깥경비가 키를 주머니에 넣는 걸 보는 조니. 고맙다며 웃고 내려가고, 앤드류는 브이아이피 룸으로 들어간다.

39. 헬기장 / 브이아이피룸 / 창고. 낮.

두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헬기에서 내리는 50대 신사. 지배인이 리무진의 문을 열어준다.

지배인 : (중) 마카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배인이 쿵지가방을 대신 들려하자, 수행원 한명이 나서서 막는다. 지배인이 손을 거두고 차문을 연다. 거만한 태도로 차에 타는 쿵지. 수행원들이 장비를 싣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뽀빠이. 쿵지의 차를 쫓는다.

뽀빠이 : 보디가드 둘. 가져왔던 슈트케이스는 첫날만 빼고 안보이는 거 보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고. 일요일 체크아웃이니까 다이아는 토요일 저녁에나 팔것 같은데. 오후엔 골프장. 저녁부터 아침까진 카지노. 따로 만나는 사람 없고.
마카오박 : 도박은 잘해요?
씹던껌 : 세게 때리는 스타일이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겠어.

-카지노. 브이아이피룸.
쿵지가 통 크게 플레이어에 배팅하자,

씹던껌 : (일) 저 중국놈 자꾸 성질 긁네. 돈을 똥구녕에서 빼오나 정말.
첸 : (일) 룰은 알고하나?

쿵지가 슬쩍 첸을 노려보면, 씹던껌이 첸이 건 칩에 더 얹어 뱅커에 걸고, 조니는 같은 금액을 쿵지쪽에 건다. 다른 테이블에서 쿵지를 지켜보는 뽀빠이.

뽀빠이 : 언제나 보디가드는 한명만 있고. 그러니까 다른 한놈은 30층에 붙박이란 얘긴데 키카드가 없어서 못가봤네. 그 층에는.
마카오박 : 키카드는 구해줄게.
조니 : (중) 총기는 어떻게 들어가지? 금속탐지기가 많은데.
마카오박 : (중) 셋째. 지뢰심기. 탐지기를 비껴가는 델 통해서 가야죠.
조니 : (중) 뭐지 그게?
마카오박 : (중) 음식.

40. 지하주차장 / 식당 / 브이아이피룸 / 창고. 낮.

-지하주차장. 화물적재소앞. 옷을 손으로 꾸깃꾸깃 접으며 걸어오는 앤드류.

앤드류 : (시시티비를 보고 흠칫 놀라며) 이런 건 왜 또 나 혼자 보내. 후~ 며칠 안남았다.

짐꾼 여럿이 트럭에서 식재료를 나르고있다.

앤드류 : 뭐야 이거? 어떤 노인네라는거야?

신문지로 얼굴을 슬쩍 가리고 런닝차림 노인네에게 다가가는 앤드류.

앤드류 : (중) 마카오에 눈이 내릴까요?
노인 : (중) 미친놈.

다른 노인에게 말을 붙이려는데, 중국노인이 다가오더니 아무렇지도않게 총꾸러미를 낚아채 음식박스에 넣는다.

앤드류 : (뒤늦게, 중) 마카오에 눈이..
중국노인 : (중) 됐어. 돈!

앤드류가 허리춤에서 둘둘말아 끈으로 묶은 돈뭉치를 신문지에 가려서 준다.

-카지노 내 식당. 조리된 음식이 카트에 올려지는 사이, 오랜지쥬스 박스에서 쥬스를 옮겨 싣다가 슬쩍 총꾸러미를 싣는 중국노인.

-음식카트를 밀며 카지노 내부를 걷는 중국노인.

-VIP룸. 중국노인이 들어오자, 음식왔다고 말해주는 직원.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는 앤드류. 중국노인이 죽그릇을 내려놓는 사이, 씹던껌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

씹던껌 : (쿵지에게, 일) 어이! 노모어 벳.
쿵지 : (중) 동시에 걸었는데.
첸 : (일) 저거 빼고 가야지 부정타게.
딜러 : (영) 어떡할까요?
상황실 매니저 : (모니터보며, 영) 괜찮아. 그냥 많이 잃어서 그래.
지배인 : (무전으로 듣고는, 영) 그냥 받아.

카트에서 중국노인이 총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자 소파밑에 발로 밀어넣는 앤드류. 꾸러미 끈이 테이블 다리에 걸려 안움직이자, 죽을 먹으며 땀을 흘린다. 스푼을 든 손이 벌벌 떨리며 꾸러미를 미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조니가 긴장된 얼굴로 앤드류를 주시하는데,

앤드류 : (중) 앗 뜨거!

앤드류가 숟가락을 테이블위로 던지며 동시에 꾸러미를 뒷발로 차듯이 소파밑으로 집어넣는데 성공한다. 지배인이 괜찮냐며 다가오려하자,

앤드류 : (중) 오지말아요. 괜찮아요. 아 뜨거워서...

앤드류가 비오듯 흘리는 땀을 닦고, 씹던껌과 첸이 과장된 몸짓으로 패를 쪼다.

첸 : (일) 에이스 나와라. 에이스 에이스!
씹던껌 : (일) 에이스! 에이스! (첸 껴안으며) 에이스다~
첸 : (일) 저 친구 저러다 집 한 채 날라가겠네. 일본어는 모르겠지?

-창고. 낮.
마카오박 : (중) 쿵지 일본어 잘해요. (한) 계속 약을 올리시고. 다음은 금고.
줄리 : (중) 기종이 뭐야?
마카오박 : (중) Bischoff laser series TRTL-30등급.
줄리 : (중) 10분 걸리겠네. 두 개 열면 20분.
마카오박 : (영) 10분가지고는 안돼. 6분!
줄리 : (영) 6분? 오케이.

41. 마카오 선박 터미널 낮.

항만옆길을 달리는 줄리와 펩시. 뒤를 따르는 벤. 잠파노가 운전한다.

펩시 : (영) 6분? 오케이? 진짜?
줄리 : (영) 몰라. 쿠마히라도 5분안에 열었으니까 열겠지.
펩시 : (영) 플라즈마 커터로?
줄리 : (영) 응. 너도 열어봤어?
펩시 : (영) 응. 4분.
줄리 : (영) 장난해? 그걸 어떻게 4분에 열어?
펩시 : (영) 모르는 게 약이야.
줄리 : (영) 그거 중국속담이야.

(경과, 바닷가 옆 항만)
콘테이너 차량에서 벤으로 금고를 옮겨싣는 잠파노.

줄리 : (영) 단단한 놈이네. 드릴을 새로 사와야 되겠는데. 자긴? 뭐 필요한 거 없어?
펩시 : (영) 드릴 필요없어. 듣고 열거야 나는.

42. 한적한 길가. 수사과장 차량. 오후.

차를 세우고 내리는 줄리. 벤 한 대가 멈추자, 차에 오른다. 검은 양복이 준비한 드릴을 보여준다. 수사과장과 마주앉는 줄리.

검은양복 : (중) 반장님! 드릴 이거면 되나요?
줄리 : (중) 괜찮아.
수사과장 : (중) 금고는?
줄리 : (중) 휴~ 6분안에 열어야 돼요. 쉽지 않은데....
수사과장 : (중) 실패하면 안되지. 그래야 마카오박이 우리를 웨이홍한테 안내해줄테니까. 웨이홍만 쫒아다닌 게 5년째야. 어쩔땐 친구같애 얼굴도 모르는데.
줄리 : (선착장에 내린 도둑들 사진을 보며, 중) 여기 좀 흐릿하네. 펩시야. 금고따개. 다시 찍어. 이정도 갖고 마카오 경찰이 좋아하겠어? 도청에선 뭐 좀 나왔어요?

줄리가 보낸 엠피3가 연결된 컴퓨터 기계를 가리키는 수사과장.

수사과장 : (중) 전화가.. 홍콩은 두통. 나머지는 다 부산인데. 거기가 마카오박 고향이야?
줄리 : (중)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가봐야 되겠다. 수고.

43. 야외주차장. 낮.

휘파람 불며 주차장을 걷는 애니콜. 손에는 깡통을 들고. 승용차 뒤쪽 마후라에 묶는다.
잠시후, 승용차 주인이 차를 출발시키는데, 뒤에서 나는 깡통구르는 소리에 기어만 옮겨놓고 내려 뒤를 보는 사이, 애니콜이 운전석에 타서 차를 출발시킨다.

44. 창고. 낮.

요란한 소리로 차를 몰고 창고안으로 들어오는 애니콜.
해체된 금고. 다이얼과 연결된 크랭크축을 보는 펩시. 금고두께를 재는 줄리.

펩시 : (영) 이걸 6분만에 연다고? glass relocker로 막아놨네. 앞쪽에서 드릴로 뚫으면 아예 잠겨버리고 충격주면 유리가 깨지면서 다이얼을 막아버릴텐데.
줄리 : (영) 앞은 8과 1/4이라.. 너무 두꺼운데.

잠파노가 번호판을 뜯어 애니콜에게 주고는, 후끼질을 준비한다.

줄리 : (영) 뒤쪽은 4와 1/8. 뒤로 뚫으면 되겠네. 드릴로.
용접봉이면 안에 돈이 탈테니까.
펩시 : (영) 구멍 두 개 뚫을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줄리 : (영) 죽어라고 돌려야지. 너는? 정말 듣고 열거야?
펩시 : (영) (헤드폰을 끼며) 클래식이라고 하지.

번호판을 들고 창고를 걷던 애니콜이 금고덮개를 밟고 가자 째려보는 펩시와 줄리.

애니콜 : 쏘리.

2층으로 올라가는 애니콜. 마카오박은 위스키를 홀짝거리며 가짜 넘버판에 후끼질을 하고 있다. 옆에 걸터앉아 마카오박 술잔을 가져가는 애니콜.

마카오박 : 독하다.
애니콜 : 독해봤자 술이죠 뭐. 캬~ 근데 진짜 하루밤에 팔십팔억을 땄어요?
마카오박 : 헛소문이야. 따는데 삼일 걸렸어. 잃는데 하룻밤 걸린거고.
애니콜 : 오우 땄을때 관뒀어야 되는데.
마카오박 : 그런 성격이면 그 돈을 아예 못따지.
애니콜 : 그 돈 잃을때 무슨 생각이 들까?
마카오박 : (술 들이키고) 나같은 새끼는 정상이 아니구나.
애니콜 : (윗 단추 풀며) 하~ 더워. 마카오는 원래 이렇게 더워요?
마카오박 : 더우면 벗어.

피던 담배를 마카오박 입에 밀어넣고는 윗옷을 벗는 애니콜. 마카오박이 그녀의 립스틱이

묻은 필터를 빨며 웃는다. 스르륵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발을 까딱거리는 애니콜.

애니콜 : 그 다이아 웨이홍인가 뭔가한테 꼭 줘야되요? 나같으면 주기 싫을 거 같은데.
마카오박 : 쫓길 걸.
애니콜 : 아~ 한번 쫓겨봤으면 좋겠다. 기분이 어떨까?
마카오박 : (담배를 애니콜 입에 꽂아주며) 좆같지. 외롭고.
애니콜 : 같이 한번 쫓겨볼까.

마카오박이 애니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어깨를 가볍게 이빨로 문다. 애니콜 간지럽다.

애니콜 : 킥킥.. 뭐하는 거에요?
마카오박 : 난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라서.
애니콜 : 나는 이상하게 어릴때부터 뭐든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던데.
마카오박 : (애니콜 이마를 찌르며) 욕심부리면 여기 구멍이 뚫릴수가 있어.
애니콜 : (피식) 내가 주고 싶은 정보도 있는데.
마카오박 : 뽀빠이랑 펩시랑 똥구녕 맞춘다는 거?

애니콜 발딱 일어나며 떨어진다.

애니콜 :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마카오박 : 쉿!
애니콜 : 아 난 그냥 친해질라고 그랬던 거예요. 딴 뜻 없고. 애니콜은 딱 이 시점에 멋지게 사라집니다. (윗옷을 입으려는데, 계단에서 보고있는 잠파노 시선에) 너 왜 그러니? 벗는 게 아니고 입는거야.

애니콜이 내려가자, 잠파노가 마카오박에게 위협스럽게 다가온다.

잠파노 : 좆도 시발 이래도 되는거야?
마카오박 : (담배 물고) 재 좋아하니?
잠파노 : 아니 그건 아니고.
마카오박 : (라이터 달래는 손짓) 잰 너 좋아한다.
잠파노 : 진짜요? (라이터 주며)
마카오박 : 그럼.

45. 창고. 해질녘.

모여서 저녁을 먹는 도둑들.

마카오박 : 여섯 번째.
잠파노 : 와~ 저랑 애니콜이 한팀이네요. 뭐해?

애니콜　: 너 삼대가 덕을 쌓은줄 알아라. 일하러 가야지.

애니콜이 브라우스 단추 두 개를 풀고, 브래지어를 조인다.

46. 술집. 밤.

사복을 입은 지배인이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애니콜을 힐긋 본다. 바에 앉는 애니콜. 잠파노는 한 칸 건너에 앉는다. 지배인이 계속 힐긋거린다. 어떻게 말을 붙일까 하는 눈치다.

-인터컷. 창고.
마카오박 : 잠파노가 잘 도와줄거야.
애니콜　: 앤 뭐 있으나마나. 십분안에 끝낼게요.

-다시, 술집. 지배인이 천천히 애니콜쪽으로 다가온다.

애니콜 : 에게 2분안에 끝내겠네.

지배인이 옆에 앉자 애니콜이 무관심한척 돌아보지 않다가,

지배인 : (중) 지금 마시는게 뭐지?

그제서야 돌아보면, 잠파노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그시 바라보는 지배인. 벙 찐 애니콜.

잠파노 : (중) 이거? 버번콕.
지배인 : (중) 처음 보는 얼굴인데.. 중국?
잠파노 : (중) 한국.

애니콜이 지배인 점퍼밑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는 중이다. 잠파노가 애니콜을 본다.

지배인 : (중) (웨이터에게) 여기 와인 두잔! (한) 내가 사는거야. (지갑을 꺼내려하자)
잠파노 : (손을 잡으며) 잠깐. 내가 살게요.
지배인 : 왜?
잠파노 : 느낌이... 좋아서.

지배인이 잠파노 손을 잡고 지그시 보는 사이, 애니콜이 지갑을 빼내 화장실로 간다. 지갑에서 키카드를 꺼내, 카드 해독기에 넣고 돌린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구석자리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지배인과 잠파노 뒷모습. 지배인은 점퍼를 벗어놨다.

지배인 : 조용한데 가서 한잔 더 할까?
잠파노 : 아뇨 그냥 여기서 먹지 뭐.

지배인이 잠파노 턱을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애니콜이 슬쩍 눈을 피하며 점퍼안으로 지갑을 밀어넣는다. 지배인이 부드럽게 잠파노랑 키스하려는데, 애니콜은 일부러 지갑을 천천히 집어넣는다. 들킬까봐 할수없이 지배인과 키스하는 잠파노. 애니콜이 지갑을 넣고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선다.

술집 밖. 잠파노가 술로 입을 행궈 뱉는다.

애니콜 : 그래 키스는 그렇게 하는거야. 입술에 힘 빼고. 자식~ 좋냐? (멈칫) 야 잠파노!
잠파노 : 왜?
애니콜 : 우리 크랭크인이 언제지?
잠파노 : 내일이 토요일이잖아.
애니콜 : 좇됐다. 비오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온다.

47. 빗속에 도둑들. / 로칼카지노 / 술집 / 창고/ 숙소. 밤. -음악 시퀀스.

-창고. 금고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줄리. 보로스코프를 밀어넣자 모니터에 다이얼 뒷판이 보인다. 옆에선 헤드폰을 귀에 꽂고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고 있는 펩시. 금고를 열고 시계를 누르자, 6분 55초. 신경질적으로 헤드폰을 벗고는 비를 바라본다.

-다른 로칼 카지노. 사람들로 북적대는 슬롯머신에 앉은 씹던껌. 핸드백에서 돈뭉치를 꺼내 집어넣고는 두 손을 비벼가며 행운을 빈다.
(경과)
슬롯 두 개를 차지하고 연신 댕기는 씹던껌. 수북한 담배. 쌓인 맥주병. 중국 아줌마가 앉으려하자 자기 자리라고 손사래 친다. 핸드백안을 보면 돈이 없다. 구겨진 지폐 몇장을 집어넣으려는데, 펩시가 옆에 앉는다.

씹던껌 : 비는? 계속 와?
펩시 : 예. 많이 잃었어요?
씹던껌 : 아이구 인제 막 시작이야. 금고는 열었어?
펩시 : 안열리네요. 손이 녹이 슬었나.
씹던껌 : 왜 못여는지 아냐? (슬롯을 팍 치며) 야 야 떠야지 쯧. 술이나 한잔 하자.

-술집. 발코니에 마주앉아 맥주를 마시는 애니콜과 잠파노.
말없이 비를 바라보는 애니콜. 슬쩍 애니콜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잠파노. 뭔지 이상해서 잠파노가 눈을 뜨면 정면 거울을 통해 잠파노를 노려보고있는 애니콜.

애니콜 : 좋니?

잠파노 : 너 요새 무슨 향수 쓰나해서.
애니콜 : 난 향수 안쓴다. 그냥 타고난 살냄새지. 근데 14억 생기면 넌 뭐할거니?
잠파노 : 왜 14억이야? 나랑 너랑 합치면 28억이지... 무슨 생각해 지금?
애니콜 : 그러네. 와. 그러니까 지금 니가 나한테 그 돈을 그냥 주겠단 얘기지? 자식! 빨리 마셔. 가게.

-맞은편 뽀빠이 방.
혼자서 술을 들이키는 뽀빠이. 전화벨이 울린다. 장물아비다.

뽀빠이 : 넵.
장물아비 : 물건 보냈다. 주소는 문자로 쐈어.
뽀빠이 : 오케이. 땡큐. 자~ 마카오박 나는 준비됐다. 너는 준비됐냐?

-창고.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제를 술에 타서 먹는 마카오박. 비닐봉지에 술을 담아 뛰어오는 앤드류. 마카오박을 보더니.

앤드류 : 어디 아퍼?
마카오박 : 괜찮아.
앤드류 : 몸이 그때 작살난거지? 웨이홍 요거랑 바람나서 걸렸다며. 근데 웨이홍이 그 여자는 죽이고 왜 자긴 살려뒀을까? 아 웨이홍 그 개새끼 무서워.

앤드류 얘길 가만히 듣고있던 마카오박이 앤드류 목을 잡고 벽에 밀친다. 이글거리는 눈에 질린 앤드류.

마카오박 : 그거 뭐야?
앤드류 : 어어흡.. 수울~.
마카오박 : (미소를 띠며) 맛있게 마셔.

손을 떼고, 우산을 들고 창고를 나가는 마카오박. 앤드류가 캑캑댄다.

-창고 2층. 술 마시는 첸과 조니. 앤드류.

앤드류 : (중) 한주먹도 안되는 새끼가 탁 잡더라고 목을. 속에서 이런게 올라오는데 참자 앤드류.. 총이 없잖아.
조니 : (중) 그렇게 잘난놈이 바람 핀걸 왜 걸렸데?
첸 : (중) 내가 찔렀지. 웨이홍한테.
앤드류 : ...
조니 : (중) ...그거 마카오박도 알아?
첸 : (중) 당연히 모르지. 잘 들어. 내 생각에 이 일은 실패한다.
조니 : (중) 왜?
첸 : (중) 사람이 많아. 액수도 너무 크고. 다이아도 팔기 어렵고. 우리는 현찰만 챙긴다.

-씹던껌 숙소. 술잔을 들이키는 펩시와 씹던껌.

씹던껌 : 내가 어릴땐 선생걸 훔쳤고 나이 들어선 남자들 걸 훔쳤는데 그 돈을 딸내미 똥구녕에 다 쳐박고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돈 주고도 눈치봐요. 이제는 어디서 뭐 이렇게 집어올라고 해도 오줌이 찔끔나와. 잡힐까봐. 그러니까 니가 부러워. 아직 이쁘고.

펩시 : 화장발이예요. 속으론 다 썩었고.

씹던껌 : (툭 치며)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면 건물을 사야돼. 강남은 끝났고 강북에 약수동 그런데다. 융자 입빠이 받아갔고 그래야 세무조사가 없지. 자 그렇게 될라면

펩시 : 금고를 열어야죠 일단.

씹던껌 : 근데 왜 못열까? 마카오박 얼굴이 머릿속에서 딸랑딸랑 하거든. 감정이 있는거지.

펩시 : 나 그 사람 미워해요.

씹던껌 : 거봐 그런 감정.

펩시 : 그럼 좋아해요? 그 개새끼를?

씹던껌 : 맞아 개새끼지. 그래도 우리 돈벌어 주게하는 개새끼다.

이때, 줄리가 들어오더니 침대로 쓰러진다.

펩시 : (영) 비는?

줄리 : (영) 그쳤어. 나 성공했다. 5분 58초.

펩시 : (영) 줄리! 잘했어.

줄리 : (영) 고마워.

-창고. 새벽. 비는 그치고 여명이 밝아온다. 금고 뒷판에는 줄리가 뚫어놓은 드릴구멍이 십여개. 옆에 시계엔 5분 58초가 찍혀있다. 자기 금고 앞에 선 펩시. 자기 시계는 6분 55초가 찍혀있다. 다이얼을 돌리며 시계를 제로로 맞추는 펩시. 눈을 감고 다이얼에 집중한다.

48. 카지노 브이아이피룸. 바카라 테이블. 낮.

카지노 안. 쿵지가 플레이어에 칩을 걸자, 뱅커에 가진 칩에 반을 베팅하는 씹던껌. 조니가 그만두라고 눈짓한다.

첸 : (일) 너무 많지 않나?

씹던껌 : (일) 오늘 나 생일이에요. 손 좀 잡아줘요. 육! 육!

첸 : (일) 육! 육!

첸이 씹던껌의 손을 꼭 잡는다. 쿵지가 자기에게 날아온 카드패를 깐다. 6이다. 엄청난 환호. 꼬옥 포옹하는 씹던껌과 첸. 지배인이 다가오더니,

지배인 : (영) 손님 실례합니다만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첸 : (여권 주며, 영) 왜 그러시죠?
지배인 : (영) 저희 호텔에 묵는건 아니고.. 한분은 중국분이시고 (한) 한분은 한국이네요.
씹던껌 : 왜요? 뭐 잘못됐어요?
지배인 : (여권을 돌려주며, 한) 제가 이 호텔 한국사람 담당입니다. 지금 스위트룸이 비어 있어서 게임 좀 더 재미있게 하시라고 괜찮으시면 저희 호텔로 옮기시는 건 어떻습니까.
씹던껌 : 공짜예요?
지배인 : 그럼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쿵지 : (일) 잠깐만. 언제 다시 내려옵니까?
첸 : (일) 새벽쯤. 뭐야 일본말 할 줄 아나?
쿵지 : (시계보더니, 일) 새벽 5시에 봅시다.
씹던껌 : (전화하며) 어 난데, 내 짐 좀 챙겨줘. 방 옮길거니까.

49. 카지노 입구가 보이는 복도.

마카오박 : (전화 끊고) 한번 들어가볼까.

카지노안으로 들어오는 마카오박. 성큼성큼 여유있게 걷는 모습이 시시티비에 잡힌다. 통제실에서 마카오박을 지켜보는데, 맞은편에서 걸어나오는 뽀빠이와 부딪치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많이 땄나?
뽀빠이 : 대장 노릇하니까 어깨에 벽돌이 올라가있네.
마카오박 : 벽돌이야 태어날때부터 있었지. 아 근데 내 선글라스 안물어줘도 돼.

마카오박이 뽀빠이에게 주먹을 날리자, 뽀빠이가 맞받아친다. 객장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와중에 가드들이 달려온다. 상황실에서 그 모습을 보는 매니저. 지배인에게 무전을 날린다.

매니저 : (영) 저번에 그 블랙리스튼데요. 제압할까요?

호텔 통로로 첸과 씹던껌을 바래다주던 지배인. 전화를 받더니,

지배인 : (키를 주며) 죄송합니다. 매장에 일이 생겨서. 좀 쉬시다가 다시 게임장에서 뵙죠.

지배인이 멀어지자 팔장을 풀지않는 첸과 씹던껌. 지배인이 엘리베이터 앞 가드를 손짓으로 부르자, 가드가 지배인을 따른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배낭맨 직원차림 잠파노. 엘리베이터에 카드키를 찔러넣는다. 통제실 직원들은 마카오박에 눈길이 가있다.

잠파노 : (전화)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카지노 안. 전화가 울리자, 마카오박이 뽀빠이와 떨어진다. 멀리서 지배인이 가드와 함께 오는 걸 보고는 순순히 나간다는 제스추어를 하며 입구쪽으로 간다.

50. 호텔 옥상/스위트룸. 낮.

-옥상. 문을 열고 나오는 잠파노. 사다리를 놓고 옥상벽에 올라와 벽을 점검한다. 멀리 마카오시내 전경이 보인다. 핸드폰에 말한다. '올라왔어요'

-스위트룸으로 걸어가는 첸과 씹던껌.
씹던껌 : (일) 첸은 감옥 가본적 있어요?
첸 : (일) 이 나이 되니까 감옥에 있으나 감옥밖에 있으나 다 똑같아요.
씹던껌 : (일) 결혼한 적은요?
첸 : (일) 없어요.
씹던껌 : (일) 왜요?
첸 : (일) 나쁜놈이니까.

씹던껌이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가며 와~ 하는 탄성을 뱉는다.

씹던껌 : (일) 첸은 좋은 사람같아요. 생일인데 샴페인 한잔 할까요?
첸 : (일) 아주 아주 나쁜 놈이예요.
씹던껌 : (일) 아니예요. 아주 아주 좋은 사람이예요.

샴페인을 집으려던 첸의 어깨가 씹던껌의 턱에 와닿고, 씹던껌은 그 어깨를 도닥인다.

첸 : (일) 실은 지금 놀란게 나도 오늘 생일이거든.
씹던껌 : (일) 어머. 그럼 우린 운명도 같겠네요?

씹던껌이 갑자기 첸에게 키스하고는 벌떡 물러난다.

씹던껌 : (일) 미안해요. 술을 많이 마셨나..

다급히 전화를 들더니, 풀이 달린 베란다로 나간다. 위를 올려다보며 전화한다.

씹던껌 : (한) 우리도 들어왔어. (그리고는 쭈볏거리며 첸에게 다가간다) (일) 후우~ 하.. 훔치기전에 좀 떨리네요.

첸이 다가와 씹던껌의 입을 입으로 막는다. 당황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씹던껌. 부드럽게 단추를 하나씩 여는 첸. 씹던껌 뻣뻣하다.

씹던껌 : 저기... (일) 나 솔직하게 안한지 10년 넘었어요.

첸　　: (일) 같이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씹던껌의 손을 이끌어 침대로 향하는 첸.

-전화를 걸며 카지노를 나오는 뽀빠이.

뽀빠이 : 물건 도착했어.

51. 창고. 저녁.

때낸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던 펩시.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다.

펩시　: 잠깐만.
뽀빠이 : 창고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십분만 걸어가. 콜로안 빌리지 자비에르 성당옆에 로드스토우 베이커리. 펩시 이름대면 줄거야.
펩시　: 배는 구했어?
뽀빠이 : 지금 계약하러 가.

52. 보트 부둣가. 늦은 오후.

보트주인에게 돈을 건네는 뽀빠이.

뽀빠이　: (영) 나머지는 홍콩에서.
보트주인 : (영) 몇 명? 두 명?
뽀빠이　: (영) 한명. 내일 아침에 봅시다.

보트를 뒤로 하고 걷는 뽀빠이. 화창한 날씨에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53. 로드스토우 베이커리. 저녁.

한산한 베이커리. 에그 타르트 만드느라 바쁜 여주인이 바라본다.

펩시　: (영) 실례해요. 한국에서 온 소포있나요?
여주인 : (영) 아~ 준비해놨어요.

여주인이 포장된 봉지를 건넨다. (경과) 해변가에서 봉투를 열려는데, 관광객들이 나타난다. 문득 길건너에 자비에르 성당이 보인다.

54. 성당. 밤.

벨벳주머니를 열면, 태양의 눈물 이미테이션이 모습을 드러낸다. 달콤한 에그타르트를 베어문다. 어스름한 촛불이 살짝 흔들린다. 성당 덧문이 반쯤 열리며 누군가 수녀에게 봉투를 건네고 수녀가 웃으며 받는다. 덧문을 열고 나오는 마카오박. 십자가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장난스럽다. 지갑으로 교묘하게 벨벳주머니를 가리는 펩시. 마카오박이 그녀를 본다.

펩시 : 저 분이 도둑놈 기도도 들어주시겠어?
마카오박 : 몰랐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힐때 옆에서 같이 박혀준 게 도둑이야. 서로를 이해한다고 우리는. (에그타르트를 집어 먹으며) 그래서 가끔은 나쁜짓도 그냥 넘어가주시지. (예수님에게) 따지고보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짓도 아니잖습니까. 그냥 똥구덩이에서 연꽃 한번 피워보자 이런거죠. 뭘 비셨나? 금고 열리게 해달라고?
펩시 : 아니. 일 끝나고 당신이랑은 다시 안만나게 해달라고.

마카오박이 식- 웃는사이 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온다.

마카오박 : 잠파노가 준비 끝났대는데.

마카오박이 전화를 걸며 일어나는데,

펩시 :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마카오박 : 조심해.

다시 어둠속으로 들어가는 마카오박. 전화소리만 들린다.

마카오박 : (전화) 잠파노! 거기 바람은 어떠냐?

55. 몽따쥬. 새벽.

-옥상. 완강기설치하던 잠파노. 전화받는다.
잠파노 : 조금 세긴한데 괜찮아요. 일 끝나면 라이타 주세요.
마카오박 : 어릴때 담배 끊어라.

-창고앞. 마카오박 뒤로 펩시가 걸어온다. 벤으로 향하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전화로) 애니콜? 어디니?

-스위트룸앞. 벨을 누르며 전화받는 애니콜.
애니콜 : 문앞이요.

문을 열어주는 첸과 씹던껌. 씹던껌이 비타민을 꺼내더니 첸에게 주자, 첸이 자연스럽게 받고는 물을 따라 씹던껌에게 준다. 침대를 슬쩍 보는 애니콜.

애니콜 : 잤냐?
씹던껌 : 아휴 잠잘 틈을 안주더라.
애니콜 : 씨바 완전 사랑의 유람선이구만. (핸드폰) 나 들어왔어요.

-창고앞.
창고문 지문을 닦는 펩시. 줄리가 장비를 챙겨나온다.

마카오박 : 오케이 돈벌러 갑시다. (중)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한) 시스템이 10분간 작동을 멈추면 자동적으로 경찰한테 연락이 가니까.
줄리 : (중) 잠입 2분. 금고 6분. 탈출 2분이라.. 휴 날라다녀야 되겠는데.
마카오박 : 쿵지는?

-호텔 로비. 뽀빠이가 전화받는다.

뽀빠이 : 이미 한시간전에 카지노로 갔어.

-창고앞.
마카오박 : (한) 그러면, 잠파노! 줄 내려.

-옥상. 잠파노가 완강기 두대 설치를 끝내고 와이어줄을 내린다. '줄 내려가'

-브이아이피룸. 조니와 앤드류가 들어오더니, 판에 앉는다. 귀에는 이어폰이 연결되있다. 쿵지가 혼자 바카라판에 앉아있다.

-스위트룸에 애니콜. 몸을 풀더니, 와이어 두줄을 하네스에 찬다.
애니콜 : (관절 풀며) 아~ 난 이때가 젤 좋아.
잠파노 : 너 나 믿냐?
애니콜 : (대충) 믿어 믿어. 뭐해?
잠파노 : 너 나 좋아하냐?
애니콜 : (대충) 왜 자꾸... 좋아해 좋아해. 빨리 올려.

기분좋은 잠파노. 완강기를 가동시킨다. 벽을 오르기 시작하는 애니콜.

-호텔 복도를 걷는 첸과 씹던껌.
첸 : (중) 우리 지금 가고 있어.
마카오박 : (벤에 타며, 중) 첸형. 시간 되면 무조건 일어나요. 푼돈에 신경쓰지말고.
첸 : (중) 걱정마 그 돈도 갖고 갈테니까.

-창고를 출발하는 마카오박 차와 펩시 줄리 앤드류의 차. 이를 지켜보는 검은 차량. 줄리와 만났던 수사과장과 홍콩경찰들.

수사과장 : (중) 좋아. 시작됐다. 출발.

56. 카지노밖. 새벽.

베네시안 외관. 밤안개와 바람을 넘어 호텔전경이 보여진다. 호텔 외벽을 타고올라가는 애니콜. 바람이 세차게 부는지, 휘청하더니, 흡착기로 균형잡는 애니콜. 호흡을 내쉰다.
잠파노가 2번 와이어 리모콘을 누르자, 애니콜이 베네시안 건물을 30도 방향으로 오른다.

57. 카지노. 새벽.

-브이아이피룸.
앤드류가 쉬겠다며 일어나자, 딜러가 칩을 유리컵으로 덮는다. 조니는 신문으로 얼굴을 덮고 소파에서 자고있다. 앤드류가 앞쪽에 앉더니, 잡지를 뒤적인다. 벌써 손이 덜덜 떨린다.

-카지노 복도. 첸과 씹던껌이 복도를 걷는다.

-브이아이피룸.
조니가 자는 척, 총기꾸러미로 손을 뻗어 꺼낸다. 앤드류에게 줄 총을 소파에 놓는 조니. 그 총을 집어야되는데 땀만 닦는 앤드류. 조니는 계속해서 천천히 총을 꺼낸다.

-카지노 외벽.
와이어를 타고 오르는 애니콜. '1번 더 당겨!' 잠파노가 1번을 누르자 몸이 솟구친다.

애니콜 : 살살하자. 언니 가랭이 무지 아프거든.

다시 30층을 향해 올라가는 애니콜.

58. 카지노밖. 새벽.

마카오박의 벤이 카지노 옆에 멈춘다. 검은양복의 홍콩경찰들이 차량과 오토바이에 나눠타고 멀찌감치 앞뒤로 멈춘다.

1조 경찰팀 : (중) 마카오박이 멈췄습니다.
수사과장 : (중) 대기지점이야. 눈 떼지 마. 우린 마카오박만 주시하면 돼. 나머지는 마카

오 경찰이 할거야.

일반 사람들 한무리가 마카오박 벤 옆을 지나간다. 1조 경찰팀이 멀리서 지켜본다.

59. 카지노 내부. 새벽.

-1. 브이아이피룸.
조니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난다. 앤드류도 겨우 총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데 쉽게 안들어간다. 룸을 들어오는 첸주머니에 능숙하게 총을 넣어주는 조니. 앤드류가 큰 숨을 몰아쉬고 총을 넣고 일어난다. 첸이 씹던껌과 함께 쿵지 앞에 앉는다.

-2.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줄리와 펩시. 뽀빠이. 짐가방을 한쪽에 놓고 로비에 앉는다.

-3. 지하금고.
지하금고 모니터에 브이아이피룸에서 나오는 앤드류가 보인다. 그 옆을 지나가는 음식수레 미는 중국노인. 평소처럼 검사를 하는 직원들.

직원 : (중) 좀 늦었네요.
중국노인 : (중) 그래야 맛있게 먹지.

-4. 옥상. 2번 완강기에 와이어줄이 감기다가 노란 리본이 나오자 리모콘을 멈추는 잠파노. 외벽을 타던 애니콜도 멈춘다. 창문안쪽에 두줄의 보안적외선이 켜져있다. 뒷주머니에서 레이저칼을 꺼내며,

애니콜 : 도착했어요.

-5 브이아이피룸 복도. 통제실 앞. 앤드류 손에서 칩통이 떨어지며 바닥에 흩어지는 칩.

앤드류 : (중) 뭐야 이거. 빨리 주워.

가드가 조니와 함께 칩을 주워주는데, 조니의 총구가 가드의 뺨을 누른다. 앤드류가 점퍼에서 총을 꺼내, 주위를 살핀다.

조니 : (중) 문열어.

가드가 통제실 문을 여는순간, 순식간에 통제실로 침입하는 앤드류와 조니.

조니 : (중) 디렉터 어딨어? 보안시스템 메인이 어디냐?

대답이 없자 앤드류가 노리쇠를 당긴다. 디렉터가 콘트롤러를 손으로 가리키자, 앤드류가

매인서버를 내린다. 모니터가 꺼지고, 앤드류가 초시계를 누른다.

앤드류 : 스타트.

-6. 호텔. 펩시가 초시계를 누르고 일어난다. 줄리와 뽀빠이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간다.

-7. 호텔 외벽. 창문안쪽 보안적외선이 꺼지자, 레이저칼로 창문을 자르기시작하는 애니콜.

-8. 호텔.
엘리베이터에 타자 30층을 누르고, 가방에서 은색천을 꺼내더니 물을 뿌려대고, 뽀빠이는 너클을 주먹에 낀다.

-9. 지하금고.
비상벨이 울리자, 직원 모두 행동이 멈춘다. 컴퓨터에는 시스템 에러가 뜬다. 중국노인이 아랑곳않고 음식을 꺼내려는데,

매니저 : (영) 뭐지 이건? 노인네는 저쪽으로 가있어.

매니저가 수화기를 든다.

-10. 통제실. 앤드류가 광케이블 단자함을 뜯어낸다.

-11. 지하금고.
매니저 : (영) 통제실! 통제실! 전화가 왜 안돼?
직원 : (영) 통제실에 문제가 있나본데요. 여긴 휴대폰도 안 터지고. 올라가볼까요?
매니저 : (영) 어차피 10분후에 경찰이 올거야. 매뉴얼대로 해. 돈은 모두 금고로 넣고 문은 막는다. 이제부턴 여긴 아무도 못들어온다.

직원들이 세던 돈을 금고에 바삐 넣는다.

중국노인 : (중) 나는 나가야 되는데. 배달이 밀렸어.
매니저 : (영) 아무도 못나갑니다.

-12. 브이아이피룸.
칩을 긁어모으는 첸.

첸 : (일) 지금부턴 내가 갈게.
쿵지 : (보디가드에게) 칩 더 바꿔.

보디가드가 가방을 열면, 현찰이 가득하다. 첸이 슬쩍 가방안을 보더니 웃음 짓는다. 씹던껌이 시계를 본다.

-13. 30층.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의자에 앉아있던 쿵지 보디가드가 일어난다.

보디가드 : (중) 엘리베이터는 원래 이 층에서 안서는데
줄리 : (중) 31층 아닌가요?

보디가드가 설명하려하는데, 엘리베이터안에 숨어있던 뽀빠이가 불쑥 주먹을 날리자, 쓰러지는 보디가드. 허리춤에 키를 꺼내 복도를 막은 문을 여는 펩시. 열영상 감지기가 작동되자, 은색천을 뒤집어쓰는 도둑들.

-14. 카지노 외벽. 창문을 자르는 애니콜.

-15. 30층. 은색천을 뒤집어쓰고 한명씩 뛰는 도둑들. 열영상 감지기가 무심히 그들을 지켜본다.

-16. 브이아이피룸.
쿵지가 엄청난 칩을 건다.

쿵지 : (일) 시간없는데 바로 갑시다.
첸 : (일) 그래볼까.

첸이 가진 칩을 몽땅걸자, 씹던껌이 손을 잡는다.

첸 : (일) 걱정하지 마. 느낌이 좋아.

패가 날아오자, 첸이 카드를 쪼인다. 씹던껌은 초조하다.

-17. 통제실. 앤드류와 조니가 총을 겨누며 초조하게 침묵하고있다.

-18. 브이아이피룸.
첸이 패를 까자, 씹던껌 탄식한다. 쿵지가 피식웃고, 딜러가 칩을 쿵지쪽으로 몰아준다.

첸 : (일) 오늘은 운이 없네.
쿵지 : (일) 그러게.
첸 : (중) 나말고 너.

첸이 벌떡 일어나 총을 꺼내 바카라 테이블위로 올라가 총을 겨눈다.

첸 : (중) 움직이면 죽는다.
씹던껌 : (일) 첸! 나 불안해요. 마카오박이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첸	: (일) 괜찮아. 그냥 보나스야.

지배인이 비상버튼을 누르려하자, 첸이 그를 겨눈다. 쿵지와 보디가드 역시 벽으로 밀려선다. 첸의 미소에 썹던껌이 강해진다. 쿵지 돈을 챙기는데, 이때, 매니저가 핸드폰으로 조용히 문자를 보낸다. '카지노 브이아이피룸. 무장강도!!'

-19. 30층 복도.
열영상카메라를 통과해온 펩시 줄리 뽀빠이. 은색천을 벗는다.

펩시	: 문앞이야. 빨리 열어.
줄리	: (영) 8분 남았어.

-20. 쿵지 방.
애니콜 : 말시키지 마. 이 쌍년들아. 힘들어죽겠구만.

압축기로 잘린 유리창을 밀고 들어오는 애니콜. 스위트룸 문에는 벽과 문사이에 붙여논 마그네틱 센서사이에 자기장이 흐르고 있다. 종이처럼 접은 알루미늄 폴더를 마그네틱센서에 붙이는 애니콜. 문을 열자 알루미늄 폴더가 펴지며 자기장은 끊기지 않고 연결된다. 사람 한명이 지나갈 틈으로 들어오는 펩시. 줄리. 뽀빠이. 펩시가 애니콜을 노려본다.

애니콜 : 하도 긴장되니까 욕이 저절로 나오네. 이놈의 캐릭터 캐릭터~
펩시	: 7분 30초!
줄리	: (중) 뒤집어. 조심 조심.

뽀빠이가 힘을 써 금고를 뒤집는다. 줄리는 드릴장비를 꺼내고, 펩시는 헤드폰을 끼더니 그 위로 붕대를 감는다. 애니콜은 책상위에서 어린애처럼 다리를 흔들며 담배를 꼬나물고는 펩시 몸을 훑어본다. 펩시 한쪽 주머니에 다이아주머니가 슬쩍 보인다.
줄리가 금고뒤쪽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펩시는 붕대를 다 감았다.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청진기를 금고에 대자 그 소리만 들린다. 다이얼을 돌린다. 그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펩시귀에 들린다. 어느 눈금에서 펩시가 멈춘다. 다섯눈금 뒤로 돌리더니 다시 앞으로. 소리 다르다. 번호 맞추는 펩시. 딸깍 소리가 크게 울린다.
뽀빠이가 돈담을 가방을 펼쳐놓고는 왔다갔다하다가 줄리 신호에 드릴 위치를 바꿔준다.

-21. 지하금고.
적막함속에 출입문과 시계만 바라보는 직원들. 중국노인은 심심하다는 듯 완탕스푸를 들고 금고옆에 주저앉아 먹는다. 후르륵.. 초조하게 왔다갔다하는 매니저.

매니저 : (중) 노인네. 절로 좀 가서 먹어요. (영)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는거야?
직원	: (영) 매니저님! 저기!

모니터로 보이는 카지노 정문. 순찰경찰 네명이 직원과 대화중이다.

-22. 카지노 정문.
직원 : 무장강도요? 그럴리가요.

직원이 무전기로 통제실을 부른다. 대답이 없자, 벽에 걸린 전화를 집어든다.

직원 : 먹통인데요.
순찰경찰 : (무전기로) 카지노 긴급상황인것 같은데요... 일단 브이아이피룸 확인하겠습니다.

-23. 쿵지방.
줄리가 드릴로 두번째 구멍을 뚫는다. 펩시가 참던 숨을 내뱉고 다시 다이얼을 돌린다. 애니콜이 초시계를 들고 잰다.

애니콜 : 1분 19. 18. 17. 좆됐네.
뽀빠이 : 조용히 해.

-24. 카지노 밖. 홍콩경찰 차량.
마카오박의 벤은 미동이 없다. 1번 경찰팀이 계속 주시한다.

1번 경찰 : (중) 왜 안움직이죠?
수사과장 : (중) 움직이면 작업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잠깐만.

차를 두들기는 작은 노크소리. 긴장하며 문을 열면 한명의 수녀.(성당에서 보여진)

1번경찰 : (중) 무슨 일이시죠?
수녀 : (중) 우리 신도 한명이 부탁한거라서.

수녀가 봉투를 경찰 손에 쥐어준다.

-25. 쿵지 방.
구멍에 보로스코프달린 내시경을 밀어넣고 다른 구멍엔 드라이버를 주입시켜 다이얼 덮개쇠판 볼트를 푸는 줄리. 펩시는 마지막 번호를 맞춘다. 열면, 서류들과 돈 다발 몇 개뿐.

애니콜 : 에게~ 저쪽에 있나보네.
뽀빠이 : 돈은 생각보다 적네. 담아.

뽀빠이와 애니콜이 돈을 담는데, 헤드폰을 벗다가 갑자기 눈길이 멈추는 펩시. 쿵지와 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위로 중국어가 써있다.

펩시 : 뽀빠이!
뽀빠이 : 담고있어.

펩시　: 줄리! 여기 뭐라고 써있어?
줄리　: (힐긋 보고 무성의하게, 중) 결혼 십주년을 축하하며. 뭐야?

사진속 여인은 도둑들이 만난 사모님 여자와 다른 여자다.

뽀빠이 : 이 여잔 누구야?

-26. 카지노밖. 경찰차량.

수녀가 준 봉투를 열어보는 수사과장. 마카오박에게 심어놓은 도청장치다.

수사과장 : (중) 뭐지 이건?

차문을 박차고 나가는 수사과장. 마카오박 벤을 지나가며 힐긋 보는데 아무도없다.

수사과장 : (중) 이 자식! 우리를 알고있어?

-27. 지하금고.
완탕을 먹으며 한손으로는 스푼질을, 한손으로는 금고를 여는 중국노인. 직원들의 눈길은 모니터에 있다. 천천히 금고를 열면 다이아가 나온다. 다이아를 완탕그릇에 넣고는 절룩거리며 음식수레에 완탕그릇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고는 이쑤시며 천연덕스럽게 모니터를 지켜본다. 브이아이피룸으로 올라온 순찰경찰들과 직원. 룸안에 총을 든 첸을 슬쩍 보고는 물러나며 다급하게 무전을 날리는 모습이 보인다. 첸의 돌발행동에 고개를 젓는 중국노인.

-28. 카지노 앞.
어느 차안. 저장된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고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사모님이다.

-29. 쿵지 방.
펩시　: (뽀빠이에게) 돈이나 빨리 챙겨. 여기서 나가야돼.
뽀빠이 : (줄리 금고쪽으로 뛰며) 아직 금고 하나 남았잖아.
애니콜 : 다이아가 여깄는데 왜 나가?
펩시　: 모르겠니? 다이아는 여기 없어.
애니콜 : 그럼 너한테 있겠지. 이미테이션 준비했잖아. 요거 말야. 뽀빠이하고.

애니콜이 펩시 허리춤에 모조 다이아꾸러미를 나꿔챈다. 펩시가 애니콜 손목을 잡아챈다.

펩시　: 어디서 궁둥이나 긁던 손을 내밀어?
애니콜 : 니가 봤냐? 내가 궁둥이 긁었는지 안긁었는지.
뽀빠이 : 조용히 해.

줄리가 금고를 열었다. 다이아가 없는 걸 알고 일어나는 줄리. 뽀빠이가 급히 금고를 뒤지

는데, 이때 모두의 핸드폰에 문자가 온다. 다음과 같은. '돈보다 과정을 즐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이아는 잊어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뽀빠이 : 뭐야 이새끼! 날 엿먹이는거야?

뽀빠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는, 미친듯이 두 개의 금고를 뒤지며 점점 이성을 잃어간다.

-30. 인서트. 마카오박 방. 벽에 붙은 뽀빠이와 첸 사진위에 붉은색 X자 표시가 되어있다.

-31. 브이아이피룸.
얼어붙은 첸. 씹던껌. 앤드류. 조니.

씹던껌 : 뭐야 이거? (전화로) 펩시!
펩시 : (전화소리) 다이아는 여기 없어. 빨리 나가.
씹던껌 : 도바리쳐. 나가야돼 빨리.

-32. 쿵지 방.
뽀빠이가 돈가방을 창문 너머로 던지고, 펩시 줄리가 서둘러 나간다.

애니콜 : 잠파노! 나 먼저 방으로 내려줘.

와이어타고 허공으로 쉭- 사라지는 애니콜.

60. 카지노 밖. 홍콩경찰 차량.

마카오 경찰차량들이 멀리서 카지노쪽으로 오고있는 모습.

경찰1 : (중) 대장! 마카오 경찰들 오는데요.
경찰2 : (중)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수사과장 : (중) 마카오박은 무조건 카지노안에 있다. 카지노 바깥 주시하고, 마카오 경찰한테 도둑들 몽따쥬 제보해 익명으로. 나는 줄리를 빼낸다. 출동.

홍콩경찰들이 차에서 나와 카지노쪽으로 향한다. 마카오 경찰차들이 그 옆을 지나가며, 카지노 앞쪽에 멈춘다.

61. 카지노 안.

-1. 지하금고.
모니터로 객장을 보던 매니저. 경찰들이 호텔로 들어오는 화면을 보자,

매니저 : (영) 됐어. 열어. 너희는 여기를 지키고. 영감은 빨리 나가.

메니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중국노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찍는다.

매니저 : (중) 왜 저런짓을 할까요?
중국노인 : (중) (혀를 차며) 쯧쯧쯧... 100% 성공할거라고 생각하니까.

중국노인이 문자를 보낸다.

-2. 파이자클럽 복도.
가방을 멘 첸과 씹던껌이 조용히 카지노 복도를 걷는다. 씹던껌에게 들어온 문자. '첸하고 같이 도망가지 마세요. 마카오박' 씹던껌이 잠깐 멈춘다.

첸 : (일) 왜요?
씹던껌 : (첸 손을 꼭 쥐더니, 일) 아네요. 가요 우리.

씹던껌이 첸과 함께 복도를 걷는다.

-3. 통제실.
앤드류와 조니가 통제실문을 막아놓고 복도로 걷는다. 모퉁이에 순찰경찰이 급히 몸을 숨기며 무전을 날린다. 앤드류와 조니는 카지노 객장안으로 들어간다.

순찰경찰 : 카지노 바깥 봉쇄하세요. 내부는 손님들 보호하시고. 저쪽이 어디죠?
카지노 직원 : 스타벅스쪽입니다.
순찰경찰 : 총 네명. 두명은 스타벅스쪽. 두명은 카지노 객장으로 나갑니다.

순찰경찰 피디에이에 도둑들 사진이 번갈아가며 뜨고, 객장을 걷는 앤드류와 조니.

-4. 메인로비 콜로네이드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줄리 펩시 뽀빠이. 로비쪽으로 걷는다. 뒤쪽에선 경찰들이 이동중이다.

펩시 : 괜찮아. 우리 얼굴을 모르니까.

-5. 카지노 뒤쪽 직원 휴게실.
청소부 복장을 한 애니콜이 부산한 직원용 복도를 걷는다. 출입문을 열려는데 경찰과 직원이 막 들어오다가 중국어로 왜 혼자 다니냐고 묻는다. 애니콜은 중국어를 모른다. 거친 기침을 뱉어내며 목을 움켜잡고 간단한 중국어를 하는척하더니 다시 기침을 뱉어낸다. 직원이 애니콜 등을 두드려주며 출입문을 열어주며 애니콜을 내보낸다. 3층 쇼핑매장이다.

-6. 3층 쇼핑매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잠파노. 주위를 살피며 걷는다. 조용하다.

-7. 3층 쇼핑매장.
애니콜이 서둘러 걷는다. 조금만 걸으면 바깥이다. 꺾인 골목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경찰들. 서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걸으면 만나게 된다. 잠파노 계단을 내려가려다 그 광경을 본다.

잠파노 : 헤이!

잠파노가 갑자기 되돌아 뛰기 시작한다. 잠파노가 왜 뛰는지 이해 못하는 애니콜. 경찰들이 잠파노를 쫒으며 애니콜 앞을 지나가자, 그때서야 이해하는 애니콜.
전력을 다해 쇼핑매장을 뛰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잠파노. 경찰이 몰려오자, 숨을 헉헉거리며 손을 번쩍 드는 그의 얼굴엔 만족감이 어린다. 애니콜은 뒤돌아 총총 걸으며,

애니콜 : 잠파노 너 진짜.. 30초 멋있었다. 병신새끼.

-8. 호텔안. 카지노 외곽 복도. 새벽.
조니와 앤드류가 서쪽 로비를 향해 걷는데, 정문에서 들어오는 마카오경찰들. 조니와 앤드류가 눈짓하더니, 서로 반대길로 갈라지며 뛴다. 앤드류가 뛰는데, 뒤쪽에서 조니의 고함과 함께 총소리 들린다. 그쪽을 힐긋 보고는 뛰는 앤드류.

-9. 총소리에 걸음이 빨라지는 씹던껌과 첸. 옆쪽에서 오는 마카오경찰을 보고는 지하주차장으로 방향을 틀며 뛰는 첸과 씹던껌. 계단을 내려가며 위를 향해 총을 쏜다.

-10. 서쪽 로비.
(앤드류)뛰다가 모퉁이를 돌며 앞쪽에서 오던 마카오경찰과 부딪친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빈 아레나 공연장이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사되는 총소리. 급히 총을 꺼내 뒤쪽으로 발사하고 홀을 가로지르는데, 경찰이 나타나자, 총을 버리는 앤드류.

-11. 메인로비. 총소리에 경찰들 몇이 바삐 움직이고, 펩시와 줄리 뽀빠이가 로비를 나가려는데, 호텔 프론트 직원이 컴퓨터와 뽀빠이를 번갈아보는 눈초리다. 뽀빠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는데, 로비를 나가려는 펩시팔목을 잡는 마카오경찰. 재빨리 반대방향으로 뛰는 뽀빠이. 경찰이 쫒는다. 로비에선, 마카오경찰이 펩시에게 수갑을 체우고는, 줄리 얼굴을 확인한다.

마카오경찰 : (줄리를 가리키며, 영) 이 여자는 없는데. 한패가?
펩시 : (영) 모르는 여자에요.

마카오경찰이 펩시를 끌고 가고, 경찰에 제압당한 뽀빠이가 괴성을 지른다.

뽀빠이 : 마카오박 개새끼. 내가 죽여버릴거야.

그 옆을 유유히 걸어나오는 중국노인. 뽀빠이에게 눈길조차 주지않는다.

62. 카지노 밖.

완탕그릇을 들고 카지노를 걸어나오는 중국노인이 차에 타자, 사모님이 차를 출발시킨다. 철의족을 빼는 중국노인. 옆에 있는 정교한 의족을 꺼내 발에 끼운다. 마카오박이다.

63. 지하주차장.

총을 발사하며 도망치는 첸과 씹던껌. 차를 주차시키는 사람을 던지고 차에 탄다.

첸　　: (일) 숙여.

씹던껌을 보호하고 총을 쏜다. 경찰도 총을 쏘며 앞을 막아선다. 달리는 첸의 차.

씹던껌 : (일) 달려! 난 괜찮아요 달려 첸.

씹던껌이 일어나 총을 쏜다. 경찰을 뚫고 달리는 첸의 차. 씹던껌이 환호성을 지른다.

씹던껌 : (일) 잘했어 첸. 사랑해. 진짜 사랑해.

64. 주차장 외부 길.

바깥으로 나온 첸의 차가 질주한다. 첸이 씹던껌을 바라본다.

첸　　: (일) 뭐라고했어?
씹던껌 : (일) 사랑한다고. 자기 멋있었어.
첸　　: (일) 다리에 힘이 없어.

씹던껌이 첸을 안는데, 손에 묻어나는 피. 복부를 적시는 붉은피. 고개를 숙이는 첸. 씹던껌이 앞을 보면 벽이 빠르게 다가온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 사이로 씹던껌의 눈물.

첸　　: (중) 미안해.
씹던껌 : (한) 아니예요. 내가 꿈을 잘 못샀어요.

첸의 손을 잡는순간, 질주하던 차가 벽을 들이받고 박살난다. 죽은 둘 위로 마카오 경찰 무전소리가 들린다.

65. 마카오박 차안.

차안에 마카오박. 사모님이 틀어놓은 마카오 경찰 무전에서 중년부부로 보이는 무장강도 둘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마카오박 : 잠깐. 지금 죽은 둘이 첸하고 씹던껌?
사모님 : 그런 것 같네요.
마카오박 : (낮은 탄성을 뱉어내며) 첸~ 넌 언제나 오바하는구나.
사모님 : 뒤에 경찰이 붙었는데.

마카오박이 뒤를 보면, 경찰차가 뒤쪽에서 옆으로 와 선다. 신호대기중이다. 옆 차를 보면 펩시와 앤드류가 연행되는 경찰차다. 무표정한 펩시가 좌회전하며 멀어진다.

66. 펩시 차안.

앤드류 : (중) (딴청 피며) 아~ 오늘 왜 이렇게 뱅커만 뜨지. 연속 뱅커 열두판이 말이 돼? 왜요? 카지노 갔다 온것도 죄요? 예? 나는 이 사람들 몰라요 진짜.

펩시손을 당기는 앤드류. 눈짓하며 발목을 들어보이는데 작은 권총이 숨겨져있다. 뽀빠이와 모두가 천정 봉에 두사람씩 짝지어 수갑이 채워져 있다. 펩시가 경찰 눈을 피해 귀걸이를 꺼내 앤드류와 뽀빠이가 묶인 수갑을 푼다. 앤드류가 권총을 꺼내 앞을 겨눈다.

앤드류 : (중) 차 세워! 수갑 키도 던지고.

경찰이 키를 뽀빠이쪽으로 던지자, 뽀빠이가 나머지 한손을 풀고, 펩시가 앤드류 왼손을 풀어주는 사이, 조수석 경찰이 앤드류 총을 잡아채자 발사되는 앤드류 총. 경찰차가 뒤뚱이며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달린다. 펩시가 귀걸이를 놓친다. 운전하는 경찰이 총을 뽑으려하자, 뽀빠이가 앤드류 총을 잡고 운전경찰을 향해 쏜다. 경찰차가 난간을 차고 물가에 박힌다. 1/4쯤 물에 잠긴 차. 앤드류와 뽀빠이가 문을 열고 도망가는데, 조수석 경찰이 총을 발사한다. 뽀빠이가 어깨에 총을 맞고는 총을 쏘며 도망간다. 부상당한 운전경찰은 앤드류쪽을 쫒는다. 홀로 차에 남겨진 펩시. 귀걸이를 찾으려는데, 바닥을 지지하던 돌무더기가 무너지며 차가 반쯤 잠긴다. 귀걸이를 찾는 손. 다시 무너지는 돌무더기. 3/4쯤 잠기는 차. 깊지 않지만 펩시쪽이 바닥인 탓에 목까지 물이 차오른다.

둑방밑에 숨은 뽀빠이 앞쪽으로 다가오는 운전경찰. 뽀빠이의 불안한 자세가 삐끗하는 순간, 운전경찰이 몸을 돌려 총을 발사하자, 빗나가며 뽀빠이와 몸이 엉킨다. 서로 총든 손을 밀치는데, 뽀빠이가 총을 발사한다. 연이어 먼데서 들리는 총소리에 죽은 운전경찰을 타넘고 도망가는 뽀빠이.

펩시가 물에 잠긴다. 안타깝게 수면은 바로 머리위다. 그대로 눈을 감는 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중국노인. 펩시가 수면위 중국노인을 보며 눈을 감는데 수갑 푸는 중국노인. 어디선가 중국노인 의족소리가 철컹철컹 들린다.

67. 해변공원. 오후.

눈을 뜨면 맑은 바닷가. 벤치에 누워있는 펩시. 줄지어있는 해변 벤치에 누워있는 많은 사람중에 한명이다. 자기 손안에 열쇠 하나가 남겨졌다. 뭔지는 모른다.

68. 수사과장 차안. 낮.

카지노밖에서 찍은 시시티비를 보는 홍콩경찰들. 사람들과 경찰이 섞인 모습. 프린트로 뽑혀저 나오는 유력한 사진들.

수사과장 : (중) 마카오박도 빈손으로 간거 아냐?
줄리 : (중) 아니예요. 분명히 가지고 나갔어요. (사진 건네받으며) 이게 더 선명하네요.

중국노인이 손에 완탕그릇을 들고 차에 타는 모습. 사모님도 찍혔다. 확대된 단독사진도 수사과장에게 전달된다.

수사과장 : (중) 저 사진 뿌려 빨리. 공항하고...
줄리 : (중) 침사추이! 센트럴 터미널에. 거기 누가 나가있지?

69. 홍콩 터미널. 화장실.

홍콩경찰 둘이서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중국노인 차림의 마카오박을 지켜보고있다.

홍콩경찰 : (중) 혼잔데요.
줄리 : (중) 그냥 따라만 가고 들키면 안되니까 본부에 협조요청 하고.
홍콩경찰 : (중) 아 걱정하지마세요. 아직 배탈려면 시간 많이 남았어요.
줄리 : (중) 무슨 소리야?

마카오박이 담배를 물더니, 홍콩경찰에게 다가온다.

마카오박 : (중) 불 좀 빌려줘.

홍콩경찰이 라이터를 주자, 유유히 담뱃불을 붙이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마카오박.

홍콩경찰 : (중) 지금 저한테 담뱃불을 붙여갔어요.
줄리 : (중) 우린 바로 넘어간다 홍콩으로. 잘 감시해.

홍콩경찰이 화장실을 바라본다.

70. 홍콩 터미널. 화장실.

화장실 안.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는 마카오박. 안경에 콧수염이 붙은 중년남자 사진이 붙어있다.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는, 수염을 붙이는 마카오박.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중국노인 얼굴과 가발. 핸드폰을 받는 소리에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마카오박 : (핸드폰을 걸며, 중) 아~ 웨이홍! 다이아 이쁘던데... 에이 화내지말고... 하하 얼마에 팔거냐구? 기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거다 시발놈아.

물을 적셔 머리를 빗어넘기는 마카오박. 유유히 화장실을 나와 홍콩경찰 옆을 걸어간다. 홍콩경찰은 화장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다시 울리는 전화.

마카오박 : (중) .... 천만불?.. 에이 홍콩에서 볼 순 없지.
당신이 직접 오면 삼일후에 봅시다. 부산에서!

71. 창고 앞. 밤.

창고앞. 펩시가 주변을 살핀다. 아무도 없다. 창고쪽으로 걷는데, 아이 하나가 펩시 옷자락을 잡더니, 손가락으로 길 모퉁이를 가리킨다. 손짓하는 뽀빠이. 어깨와 팔에 부목을 댔다.

(경과)
펩시가 뽀빠이에게 가더니, 뺨을 날린다.

펩시 : 어떻게 거기서 날 놓고가?

펩시 팔을 움켜쥐고 벽으로 미는 뽀빠이.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린다.

뽀빠이 : 너! 마카오박이 나 대가리 칠거라는 거 알고있었냐?

펩시의 눈매가 싸늘하자, 오버페이스를 슬쩍 웃음으로 바꾸며 손을 푼다.

뽀빠이 : 허 내가.. 미안해 맞아. 언니부터 구했어야지. 근데 사람을 쐈어. 이 손으로. 응? 도둑질이나 하던 놈이. 마카오박 그 새끼 때문에 첸하고 씹던껌은 죽고.

휘장을 젖히자, 텅빈 노천카페. 허겁지겁 식사하는 앤드류와 화장하는 애니콜.

애니콜 : 들었지? 나 결혼할 때 지가 엄마노릇 해준다고 해놓고 아우 미친 씹던껌. 별로 멀지도않은 저승길을 뭘 그렇게 서둘러가.. (펩시에게) 홍콩 가야지 그 새끼 잡으러.
펩시 : 그래 추던 춤은 계속 춰야지. 근데 마카오박을 어떻게 수배하나.
앤드류 : 왕풍부잉 (望風捕影) 바람을 쫒아가면서 그림자를 붙잡는다. 사모님인가 뭔가 걔 뭐타고왔지 우리 만날 때?
애니콜 : 롤스로이스.

72. 홍콩. 낮.

홍콩거리. 그리고 렌트카 사무실.

롤스로이스에 오르는 멋진 코트 차림의 애니콜. 시트가 맘에 든다는 표정이다.

애니콜 : (한) 어떤새끼들이 이런 차를 타고다니냐.. 통역해.
앤드류 : (중) 다른 매장 가보니까 여자한테는 잘 안빌려주던데.
직원 : (중) 바로 전에 빌려가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일주일전에.. 한국분이었습니다.
애니콜 : (한) 찾았다 앤드류. 역시 한국년이었어.
직원 : (중) 여길 보시면 요 앰블럼이 100% 백금으로 되있는데, 시동을 켜시면 올라오게 되있구요..

애니콜이 손목에서 카르티에 시계를 풀어 시트밑에 넣는다. 헤어지기 서운한 시계다.

애니콜 : 아~ 이거 훔칠때 기분 진짜 좋았는데... 어이 어이 여기 시계 하나 떨어져있네.

(경과) 사무실. 시계를 택배봉투에 넣고 고객리스트에서 주소를 배껴쓰는 직원. 펩시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슬쩍 직원옆에 오더니, 한눈파는 사이에 고객리스트를 찢는다.

73. 홍콩. 주택. 낮.

현관앞. 펩시가 철사를 꺼내 현관열쇠를 열려는데, 발로 차는 뽀빠이. 들어가면 텅빈 집.

애니콜 : 이럴 줄 알았어 양수지 이년.

집안을 뒤지고, 쓰레기봉지를 찢어 내용물을 살핀다. 펩시가 천천히 집을 보면, 싱크대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보니, 아직 끊기지 않았다. 전화기엔 발신기록이 뜬다.

펩시 : 앤드류!

발신기록을 누르는 앤드류. 식당전화다. 누른다. 식당이다.
다음 발신기록을 누르는데,

전화　: 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앤드류가 한국말이라고 신호보내자, 얼른 수화기를 받는 펩시.

펩시　: (고상한 말투로) 여보세요. 거기가..
전화　: 네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입니다.
펩시　: 아~ 제 친구가 혹시 거기 묵고 있나 해서 확인 좀 할려구요.
전화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펩시　: 양수지라고 하는데요.
전화　: 잠시만요... 룸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펩시　: 아뇨. 가서 볼게요. 고맙습니다.
애니콜 : 오케이! 야 앤드류 너 고생많았다. 다음에 홍콩오면 보자. 짜식.
앤드류 : 잠깐만. 지금 분위기 왜이래? 동포끼리. 아이~ 농담인줄 알면서도 긴장했네.

앤드류가 허둥대며 따라나간다.

74. 홍콩. 낮.

쿵지 집. 내부. 겁에 질린 얼굴로 급하게 가방에 돈뭉치를 쑤셔담는 쿵지. 돌연 텅빈 집에 총을 겨눈다. 조용하다. 다시 돈을 쑤셔넣는다.

집 밖. 도로. 불룩한 가방을 채 닫지도 못한 채 들고오는 쿵지. 차쪽으로 뛰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받으면, 웨이홍이다.

웨이홍 : (중) 어디로 숨을려구? 말레이시아?
쿵지　: (중) 아닙니다. 회장님 다이아는 제가 꼭 제돈으로 갚을려구 지금..
웨이홍 : (중) 돈은 문제가 아냐. 내 이름이 문제지. 내 이름에 대한 공포심. 그게 없어지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웨이홍의 다이아를 훔친 마카오박은 죽어야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억되야지.

주위를 살피며 차에 타는 쿵지. 마른 침을 삼키며, 운전석 보디가드에게 출발하라고 어깨를 두들기자 축 늘어진다. 조수석 보디가드 역시 이마에 총을 맞았다. 공포심. 차를 나와 뛴다.

웨이홍 : (중) 그런데.. 너는?
쿵지　: (중) 저야 회장님밑에서 30년동안 한번도 실수한 적 없잖습니까?
웨이홍 : (중) 웨이홍의 다이아를 잃어버린 쿵지는 어떻게 기억되야될까?

쿵지 : (중) 살려주십쇼.

차 한 대가 다가오자 골목에 황급히 숨는 쿵지. 차는 그냥 지나치는데, 쿵지 뒤 어둠속에서 나오는 애꾸눈깔. 쿵지 뒤통수에 총알을 발사하고는 핸드폰을 집어드는 애꾸눈깔.

애꾸눈깔 : (중) 다음은 어디죠? 삼촌.
웨이홍 : (중) 부산. 나도 간다.

핸드폰을 끊고 하수구에 버리는 애꾸눈깔. 길거리에 포진해있던 웨이홍 패거리들 다섯이 소리없이 애꾸눈깔을 따라 사라진다.

75. 홍콩. 낮.

죽은 쿵지를 찍는 경찰들. 하수구 맨홀이 들리고 핸드폰을 찾아낸다. 핸드폰이 줄리손에 넘겨진다. 유심카드가 꺼내지고, 그 뒤에 숨은 도청장치를 찾아낸다. 컴퓨터에 연결된 도청장치에서 들리는 소리. “다음은 어디죠?" "부산. 나도 간다”

형사과장 : (중) 왜 부산이지? 우리가 도청한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에 계속 전화했잖아.
줄리 : (중) 마카오박은 무슨 생각을 하는거죠?
형사과장 : (중) 일단 가야지. 아는 형사가 있어. 한국에.

76. 서울. 경찰청. 낮.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펼쳐지는 서울 풍경. 차에 탄 수사과장과 줄리.
경찰청 앞. 차에서 내리는 반장.
경찰청 내부 사무실. 서장이 형사과장을 소개하자 대충 악수하는 반장. 칸막이 너머 줄리가 일어나자 화색이 돌며,

반장 : (영) 나이스 투 미츄. (서장에게) 서장님. 웨이홍을 홍콩에 넘겨줘도 제가 잡은걸로 해줘야 됩니다.
서장 : 당연하지.

녹취된 마카오박 통화가 잡음에 섞여 흘러나온다. 도둑들 사진을 보던 반장이 뽀빠이 얼굴에 멋고는 형사에게 보여주며 웃는다.

반장 : 법이 너한텐 빨라진다니까. 잠깐만 스돕!

형사가 통화소리를 다시 들려준다. ‘항구라 전망은 좋아도. 시끄럽겠구만. 11층까지 올라오잖아 뱃소리가’

반장 : (부산 지도를 펼치더니) 부산에 항구라 할만한게 5군덴데 반경 2키로안에 11층 넘는 건물 찾아봐. 주거지. 사무실. 공장. 다.

반장이 서랍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자,

줄리 : (영) 총은 없어요?
반장 : 총 없어. 한국은.
줄리 : (허리춤에 총을 보여주며, 영) 그 사람들은 있어요.

반장이 줄리 얼굴을 본다. 그는 이 일이 걱정되기 시작한다.

77.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낮.

슈트케이스에서 옷을 정리하는 사모님. 애완견이 짖다가 멈추는 소리에 거실로 나오면, 들어오는 뽀빠이와 펩시. 복도로 도망가는 사모님. 다시 뒤돌아 걸어나온다. 그 뒤에 모습을 드러내는 애니콜과 앤드류. 침착하려 애쓰며 담배를 무는 사모님. 방에는 그녀가 배우지망생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애완견을 찍은 사진들이 가득하다.

사모님 : 난 그냥 하라는대로 연기만 했을 뿐이에요.
애니콜 : 요걸 확 그냥 피카소 그림에 나오는 여자처럼 해줄까.
사모님 : 애니콜! 스물 여섯. 가끔 아빠 지갑이나 털던애가 집안 낭비벽 못 이기고 이 바닥으로 뛰어든지 십년. 범죄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는 여자. 팀을 배신할 가능성 80%. 전과 1범. 간통죄로.
애니콜 : 이런 미주가리 십빠빠 같은 게. 누가 내 자서전 써달래니? 하~ 갑자기 피눈물이 역류할라 그러네.
앤드류 : 절도가 아니라 간통으로 걸렸어?
애니콜 : 그건 간통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래서 넌 뭐야?
사모님 : 나? 영화배우 될려다 사기나 치고 다니는 시시껄렁한 인생. 그래도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년. 당신은 (뽀빠이에게) 본명 김기호. 나이는 본인도 모르고. 고아원에 기록이 없어서. 혼자 좀도둑생활하다 84년에 특수절도로 소년원에 수감. 2001부터 마카오박 꼬봉으로 망보는 일부터...
뽀빠이 : (사모님을 후려치며) 누가 누구 꼬봉이야?
펩시 : (사모님에게 손수건을 주며) 그 사람 어딨어요?
사모님 : 말했잖아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대니까.

뽀빠이가 눈짓하자, 앤드류가 주방으로 가더니, 과도를 꺼내다가 다시 식칼로 바꿔든다. 사모님은 고개를 돌리고 담배만 피운다. 펩시가 애완견 사진을 둘러보고는,

펩시 : 강아지 사랑해요?

사모님 : 카메론... 잠깐만. 카메론! 도망가.

펩시가 눈짓하자, 앤드류가 카메론 뒷덜미를 잡고 칼을 겨눈다. 애처로운 사모님.

사모님 : 잠깐. 그 아이는 상관없잖아. 불쌍한 앤데.
애니콜 : 개가 우리보다 불쌍해? 앤드류! 확 따버려 모가지.
사모님 : 걔는 놔줘요.
펩시 : 어딨어요 그사람?

78. 마카오박 거처. 도로. 맞은편 건물. 낮.

수염을 뜯어내고 그새 자란 수염을 면도하는 마카오박. 커피를 들고 베란다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면, 공사중인 인부들. 상점 앞에 사람들. 주차된 차들.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마카오박을 살피던 형사가 들킬까봐 블라인드에서 뒤로 물러난다. 거리에 주차된 벤안에는 반장 패거리와 홍콩 형사과장이 앉아있다.

반장 : (무전) 뭐하냐 그 새끼?
건물 형사 : (무전) 뭐 커피같은 거 마시는데요.
반장 : (무전) 근데 우리 커피는 왜 안오냐?
건물 형사 : (무전) 지금 가고있네요.
줄리 : (무전, 중) 과장님! 거기 견딜만해요?
수사과장 : (무전, 중) 좁다.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
줄리 : (중) 훗.
반장 : (무전) 차들 많아진다. 놓치지 마.

멘션앞으로 다가오는 애니콜 운전 차량.

사모님 : 저기 1103호예요.

애니콜이 차를 세우려는데, 반장 벤 문이 열리고 형사한테 커피를 받는 반장얼굴을 보는 뽀빠이. 급히 몸을 숙인다.

뽀빠이 : 계속 가. 천천히. 저기서 좌회전 해서 빠져.
애니콜 : 왜?
뽀빠이 : 고개 숙여. 경찰들 깔렸어.

슬쩍 보면, 골목안쪽으로 숨겨진 경찰기동대 차량. 방탄복을 착용하던 줄리가 건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펩시와 애니콜.

79. 야외 주차장/ 맨션 앞/ 맨션 안. (계획과 동시에 실행되는 느낌) 낮.

-1. 주차장에 새운 차 앞에서 서성이는 도둑들. 사모님은 차안에 앉아있다.

애니콜 : 이건 좀 심한데. 뭐 줏어먹을 거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
앤드류 : 안돼 안돼 이건 못해. 기동대 뭐 그런애들도 왔던데 우리 잡으러 온거야?
애니콜 : (앤드류를 한번 째리고는) 웨이홍네 애들이 오면 한판 붙을거아냐?
뽀빠이 : (앤드류를 밀치며) 줄리 그년이 왜 경찰이야?
앤드류 : 몰랐지 나는. 내가 경찰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애니콜 : 참 내 꿩잡으러 갔다가 닭도 못잡고 계단 후라이나 얻어먹을까 했더니 경찰들한테 쪽 다 팔리고.. 됐다 가자. 거길 어떻게 들어가냐?
뽀빠이 : 몰라 생각중이야.
펩시 : 예전에 마카오박이랑 같이 한번 했던거 있잖아.
뽀빠이 : 뭐?
펩시 : 경찰도 도둑이랑 똑같다. 숨어있을때는.

-2. 맨션 앞. 견인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쇄도한다. 경찰들 승용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공무원들.

반장 : 뭐야 저거?

반장이 벤에서 뛰어나가 공무원들에게 가더니,

반장 : 뭡니까?
공무원 : 주차 단속하잖아요. 민원 들어와서.
반장 : 저기.. 여기.. 여기. 아니 쳐다보지말고.

반장이 허리춤에 경찰증을 슬쩍 흔들어댄다. 그 사이, 맨션으로 들어가는 앤드류.

-3. 맨션 안. 수위로 위장한 경찰이 밖을 내다보는 사이,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앤드류. 최고층을 누르고, 정기검진판 전화번호에 새 번호를 입힌다.

-4. 야외 주차장.
펩시 : 뭐였지? 그 라인 이름이?
뽀빠이 : 트랜스.
펩시 : 트랜스. trance. (앤드류에게) 그 전원만 꺼놔. 엘리베이터 멈추게.
앤드류 : 나 혼자?

-5. 맨션 안.
엘리베이터 전원판을 여는 앤드류. 온통 영어다.

앤드류 : 트래... 지? 뭐였지? 세자였는데. 트래...(뒤를 힐긋 보고는) 흐억.. 트랜스! 왜 또 이런건 혼자 하라고.
펩시 : (전화) 앤드류! 트랜스 내렸어?
앤드류 : 아 그거. 내렸어.

-6. 야외주차장.
수리공복장을 입은 도둑들. 핸드폰 박스를 뜯는다. 사모님에게 핸드폰을 건내는 펩시.

펩시 : 그 사람이 나보고는 뭐래요?
사모님 : 궁금해요? 가서 물어볼까요?
애니콜 : 어이. 지금 내 눈에서 광선 나오는 거 보이지? 연기 잘해 다 듣고 있으니까. 구라 잘못까면 카메론은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가 되요.
사모님 : 그 다이아 안가져 가면 마카오박은 죽어요. 웨이홍한테.
뽀빠이 : 그럼 더 좋고. 웨이홍네 애들은 언제 만나기로 했어?

-7. 마카오박 방. 울리는 핸드폰. 받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만나서? 30분 있으면 사람들 올텐데... 아냐 내가 내려갈게.

80. 맨션 앞/ 안. 낮.

마카오박이 계단으로 내려온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에 몇몇 주민이 수위실 앞에 모여있다. 수위실 형사가 마카오박을 발견한다.

수위실 형사 : 마카오박 움직입니다. 현관으로 내려오는데요.
수사과장 : (무전, 중) 줄리! 마카오박 움직인다.
줄리 : (맞은편 건물에서, 중) 보고 있어요.
반장 : 영식아!
공사인부 형사 : 예 반장님.
반장 : 니가 이쪽 맡아라. 우리가 따라갈테니까. 천천히 출발.

벤이 마카오박 뒤를 따르는데, 이때, 맨션 앞에 멈추는 엘리베이터수리 차량. 모자를 쓴 뽀빠이. 펩시. 애니콜이 장비를 들고 맨션으로 들어온다. 수위실 형사는 바깥쪽에 정신이 팔려있고 원래 수위가 도둑들을 부른다.

진짜 수위 : 2층에서 멈췄어. 시간 얼마나 걸려?
뽀빠이 : 뭐 일단 봐야죠.
진짜 수위 : 빨리 끝내. 지금 좀 바빠 여기가.
뽀빠이 : 네. (애니콜에게) 고치는 척할테니까 올라가.

뽀빠이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애니콜과 펩시는 계단을 오른다. 계단을 올라가는 애니콜과 펩시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오는 앤드류. 상부를 뜯고 엘리베이터 위에 자리잡은 뽀빠이.

81. 맨션 내부. 1103호.

거친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접어든 애니콜과 펩시.

애니콜 : (핸드폰) 헥 헥.. 담배 끊어야지. 그래도 니코틴은 좀 넣고.

1103호문을 따는 펩시. 애니콜이 뒤이어 들어와 재빨리 집을 뒤져가고, 펩시는 천천히 집안을 눈으로 훑으며 담배를 입에 문다.

애니콜 : 마카오박 냄새가 솔솔 나는구나. 뭐하셔? 집구경해?
펩시 : 그런데 숨길 인간이 아냐.

애니콜이 장을 열면, 등산용 자일과 카라비너들. 식탁에 약통을 보더니,

애니콜 : 이 사람은 밥을 안 해먹고 진통제만 먹나?

펩시에게 스쳐가는 기억. 마카오박 방에서 전화하던 마카오박. '방은 두 개로 잡아주고..' 복도로 나가는 펩시. 복도에 서서 다른 문들을 본다.

82. 맨션 앞. / 경찰 상황실.

맨션앞을 느리게 지나가는 하얀색 청소차량. 줄리가 벤을 주시한다.

맞은편 형사 : 영식아! 저차가 지금 몇 바퀴째 도는거지?
공사장 형사 : (공사장에서) 세바퀴쨉니다. 차량번호 확인해봐요 도난차량인지.
맞은편 형사 : 그냥 돌아나가는데.

83. 맨션 안.

복도. 현관문틈에 종이쪽지가 끼워진 문앞에 서는 펩시. 1105호다. 초인종을 누르고는, 조용히 문을 딴다. 커튼이 쳐져 어두운 집. 식탁위에 식사 흔적. 불을 켜도 살짝 어둡다.

84. 맨션 근처 카페 / 맨션 안. 낮.

-카페안. 마카오박이 카페문에 비치자,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르고 뒤집어놓는 사모님. 사모님이 건 전화가 모두에게 울린다. 애니콜. 펩시. 뽀빠이. 이어폰을 낀다.

-카페밖. 길을 걷는 앤드류. 이어폰을 낀다.

-카페안. 마카오박이 들어오자, 바로 뒤로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앉는다. 카페가 보이는 맞은편 길에 벤이 멈춘다.

마카오박 : 표는?
사모님 : 거기. 배는 두시간 후에 출발이예요. 웨이홍은 언제 와요?
마카오박 : 조금 있다가.
사모님 : 그냥 돈만 받고 끝낼건 아니죠? 당신 다리도 잘랐는데.
마카오박 : 감정은 감정이고 돈은 돈이고.
사모님 : 그럼 우리 언니 죽은거는? 웨이홍 그새끼한테서 빼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마카오박 : 그건 용서가 안되지.

-1105호. 펩시의 이어폰으로 마카오박과 사모님의 대화가 계속된다. 옷장을 열어보면, 벽에 걸린 양복 한 벌. 들고서 주머니를 살피는데, 옷장벽에는 뽀빠이와 첸의 사진 밑으로 도둑들 계획도가 붙어있고, 뽀빠이 첸의 얼굴위로 붉은 X자가 표시되있다. 그 위쪽으로 웨이홍의 얼굴. 역시 X자.

사모님 : 우리 언니 사랑했었죠?
마카오박 : 솔직히 난 여자를 다 사랑해.
사모님 : 그럼 펩시 그 여자도? ...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여잔데 물에 빠졌다고 노인네 얼굴로 가서 구해준거예요?

펩시가 몸이 굳는다. 동작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한다. 마치 마카오박 대답을 기다리듯.

마카오박 : ....
사모님 : ...
펩시 : ....

펩시가 이어폰에 이상있는지 만지다가 떨어뜨린다. 어둡다. 디머를 올리는 펩시. 천정 조그만 샹들리에안에 숨겨진 다이아가 반짝거리는 그림자를 벽에 드리운다. 그 모습에 넋을 잃다가 황급히 이어폰을 다시 귀에 낀다. 탄식이 흘러나오는 펩시.

85. 마카오박의 회상.

-1. 건물안. 펩시의 비명. 와이어 투투툭~. 떨어지는 마카오박. 펩시가 문을 열고 통로에서 나간다. 건물 지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카오박. 부서진 무전기. 위를 보면, 경찰들이 프레

쉬가 지하통로 위쪽에 비쳤다 사라지고 소란스럽다. pvc배관이 연결된 통로에서 배관들을 빼는 마카오박. 금괴가방을 끌며 힘들게 들어간다.

-2. 하수구 안. 좁은 하수구로 떨어지는 마카오박. 고통스러워하며 하수구를 긴다.

-3. 카페안. 사모님을 바라보는 마카오박. 빨대로 냉커피를 쪽쪽 빨아마신다.

마카오박 : 갈비뼈 네 개. 오른팔 오른다리 부러지고. 그래도 안죽잖아.
사모님 : 하수구에서 몇일이나 있었어요?
마카오박 : 수염이 이만큼 자랐지 그 안에서.

-4. 한강변. 공을 줍던 아이가 어딘가를 보고 멈춘다. 하수구 출구. 피범벅 원시인같은 마카오박이 고인물을 마시고는 아이를 보고 웃는다.

마카오박 : 오늘이 며칠이니?
아이 : 일요일요.
마카오박 : 5월달?
아이 : 6월달인데.

-5. 카페.
사모님 : 그래서 집에 갔더니
마카오박 : 깜깜하더라구.

-6. 뽀빠이 사무실. 밤.
방앞에 놓인 펩시와 뽀빠이 신발. 창문너머로 보는 마카오박. 침대에 나란히 자고 있는 뽀빠이와 펩시. 옆에 놓인 도끼를 집어드는 마카오박. 펩시가 뒤척인다. 그 얼굴을 보고 조용히 도끼를 놓고 창문에서 물러난다.

-7. 1105호. 이야기를 듣고있는 펩시.

-8. 엘리베이터 통로. 이야기를 듣고있는 뽀빠이.

-9. 1103호. 계속 뒤지는 애니콜.

애니콜 : 여기도 또 사랑의 유람선이구만. 근데, 요년은 어디갔지?

-10. 카페.
마카오박 : 아 그러고보니 그 여자가 와이어를 자른게 아냐.
사모님 : 여자를 너무 믿지 마요.
마카오박 : 그 여자는.. 마카오에서 날 미워했거든. 진심으로. 그리고 와이어 담당은 남자야. 그 여자를 몰래 좋아했던 남자. 나랑 그 여자가 없으면 좀도둑밖에 안되는 새

끼.

-11. 1105호.
펩시 : 뽀빠이!
뽀빠이 : 왜?
펩시 : 니가 잘랐어? 마카오박 와이어?
뽀빠이 : (애써 웃으며) 무슨 소리야?
펩시 : 야. 이. 개.새.끼.야. 확실히 말해.
뽀빠이 : 거 참.. 야 이 시발년아. 헛소리말고 빨리 다이아나 찾아.
펩시 : 다이아는 없어 이 새끼야.

불을 끄고 1105호를 나가는 펩시. 애니콜이 문옆에서 펩시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애니콜 : 어라~ 울었나봐?
펩시 : 그만하자. 좋은공기 탁하게만들지 말고.
애니콜 : 다이아 여기 있지?
펩시 : 그냥 빈 방이야.
애니콜 : 에~ 열어.
펩시 : 니가 열어. 열 수 있으면.

펩시가 모조 다이아를 버리고 돌아선다.
애니콜이 1105호 문을 당겨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12. 카페.

마카오박 : (일어나며) 얘기 끝났으면.
사모님 : 웨이홍은 어떻게 잡을거예요?
마카오박 : 내가 잡나? 여기 깔린 경찰들이 잡아야지.
사모님 : 같이 잡힐텐데?

그쯤은 괜찮다는 표정의 마카오박. 담배와 라이터를 챙기는데, 사모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일부러 엎지른다. 커피가 테이블위를 미끄러져 사모님의 핸드폰을 적시려하자 마카오박이 핸드폰을 든다. 핸드폰을 뒤집으면, 통화시간 8분 46초다. 사모님은 말없이 미소 짓는다.

마카오박 : 내 집에 들어갔나?
펩시 : 나예요.
마카오박 : 어~ 다이아는 찾았고?
펩시 : 못찾겠던데.
마카오박 : 다행이네.
펩시 : 마카오에서 나 구해준 거 고마워.
마카오박 : 어어 그건 뭐. 배타기전에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는..

-13. 엘리베이터 통로. 뽀빠이가 버튼을 눌러 펩시의 통화를 끊는다.

뽀빠이　: 연애하냐 지금?
마카오박 : 어 뽀빠이. 역시 니가 없으면 안되지. 내가 우아한 인격으로다 도망갈 시간을 5 분 줄게. 무서운 애들이 오잖아.
뽀빠이　: 언제부터 그렇게 인격이 우아해지셨나?
마카오박 : 몰랐나? 인격이란 게 원래 지갑에서 나오는법이지.
뽀빠이　: 그 지갑은 내거야. 애니콜! 다이아 찾았냐?

-14. 1105호 앞. 문을 열려고 애쓰던 애니콜.

애니콜 : 아 나까지 부르면 어떡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지금 들어갑니다. 1105호로.

펩시가 버린 모조다이아를 들더니, 급하게 1103호로 뛰어가는 애니콜.

-15. 1103호.
애니콜이 재빨리 창틀을 타넘어 날렵하게 1105호 창문을 넘어 들어간다.

-16. 카페앞. 카페를 나서는 마카오박.

뽀빠이 : 들었지? 넌 시발놈아 지금 지옥에 있는거야.

멈칫하는 마카오박. 생각에 잠기다가 맨션쪽으로 몇발짝 걷는가싶더니, 뒤돌아간다. 그때, 맨션을 돌던 하얀색 벤이 마카오박 앞에 멈춰선다. 문이 열리면, 애꾸눈깔과 양복쟁이 셋.

애꾸눈깔 : (타라고 손짓하며) 하이!

양복쟁이들. 총을 들고있다. 마카오박이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더니, 전화기에 대고,

마카오박 : 어차피 천국엔 아는 사람도 없다.

마카오박이 전화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니, 차에 올라탄다.

마카오박 : (중) 웨이홍은?
중년　　 : (중) 보고 계셔. 다이아는?
마카오박 : (중) 집에.

반장과 수사과장이 탄 벤이 하얀색 벤을 쫒는다.

반장　: (무전) 접선했다. 카페안에 여자도 일단 체포해놔.

앤드류가 카페안을 보면, 잠입한 경찰이 사모님에게 다가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86. 맨션 안과 밖.

-1. 맨션 앞. 벤이 멈추고, 동시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패거리 세명이 내린다. 벤에서 내린 애꾸눈깔 패거리와 모르는 사이처럼 맨션쪽으로 걸어간다.

공사중 형사 : 택시에서 셋. 벤에서 넷. 반장님! 지금 잡을까요?
반장 : (수사과장에게, 영) 웨이홍 얼굴 알아?
수사과장 : (영) 아니.
줄리 : (무전, 중) 잠깐만요. 일단 벤에 운전사가 있는데.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수사과장 : (반장에게, 영) 운전수. 확인.
반장 : 벤에 있는 운전사부터 제압해. 조용히. 3분후에 들어가자.

-2. 1105호.
불꺼진 방. 고요하다. 애니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 담배를 피워 물고는,

애니콜 : 자! 나는 마카오박이다. 마카오박. (남자 목소리로) 이 쪼그만 걸 어디다 간직해놀까.. 혹시 귀여운 애니콜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 (싱크대를 열더니) 아니지 여기다 숨기면 애니콜한테 들키지..

-3. 맨션 로비.
계단을 올라가는 애꾸눈깔 패거리들. 계단을 내려오는 펩시와 마주치는데, 마카오박은 그녀를 보지않고 그대로 올라간다. 펩시도 조용히 계단을 내려간다.

-4. 맨션 앞.
세워둔 엘리베이터 수리차량에 타는 펩시. 차를 몰고 떠난다. 맞은편 건물에서 나오는 줄리와 형사들. 길가를 살핀다.

-5. 1105호.
고양이처럼 엎드려 바닥을 손으로 훑는 애니콜. 먼지쌓인 곳에 의자자국에 멈춘다.

뽀빠이 : 애니콜~ 찾았냐?
애니콜 : 쉿! 말시키지 마. 의자가 옮겨졌다? 누가? 마카오박이? 펩시가? 왜?

위를 올려다보고는, 의자를 가져와 천정 이음새를 수색한다.

-6. 계단.
계단을 오르는 마카오박과 애꾸눈깔 패거리들.

-7. 맨션 밖.
줄리와 형사들이 하얀벤쪽으로 걷는다. 공사중이던 형사들도 작업을 마친 인부처럼 행동하며 천천히 하얀벤쪽으로 간다.

-8. 1105호.
천정을 만지다가 샹들리에를 본다. 손을 뻗으면 닿을곳에 전등디머가 있다. 디머를 올리자, 다이아가 빛난다. 담배를 비벼끄고 환호성을 지르는 애니콜. 소리는 없지만 동작은 크다.

-9. 11층 복도.
계단에서 복도로 접어든 마카오박과 애꾸눈깔 패거리들.

-10. 1105호.
펩시한테 받은 모조다이아와 바꿔치기하는 애니콜.

-11. 1105호.
마카오박이 1105호 문을 열쇠로 여는데, 표시한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있다. 바닥에 떨 어진 얇은 에쎄 맨솔. 베란다 창문은 살짝 열려있다. 전등갓에 삐죽이 나와있는 다이아를 가리키는 마카오박. 감정사로 보이는 사내가 의자를 가져오는데, 마카오박이 막는다.

마카오박 : (중) 웨이홍! 채권은?

애꾸눈깔 뒤에 서있던 중년사내가 앞으로 나오며 봉투를 던진다. 웨이홍이다.

웨이홍 : (중) 감정은?
마카오박 : (중) 저방에서.

감정사가 올라가 다이아를 꺼낸다. 화장실 환기구안에 애니콜. 다이아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기기 시작한다. 패거리 한명이 엘리베이터앞을 지키고, 모두들 1103호로 간다.

-12. 카페앞.
경찰과 같이 나오는 사모님. 수갑은 채우지않았다. 차에 태우려는 경찰머리를 방망이로 때리는 앤드류. 사모님 손을 잡고 뛴다. 골목에서 헉헉대는 두 사람.

사모님 : 카메론?
앤드류 : 나 앤드류래니까.
사모님 : 아니 우리 카메론!
앤드류 : (배를 가리키며) 이 안에 있지.
사모님 : (두들겨패며) 이 식인종같은 새끼가 내 애를 처먹어?
앤드류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앤드류가 점퍼를 열면 포대기안에 싸여있던 카메론. 사모님이 카메론을 안는다.

-13. 맨션 밖.
하얀색 벤쪽으로 가는 형사들.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신호와 함께 차를 덮치는 형사들. 운전사가 총을 뽑으려는데, 총든 손을 제압하고 끌어낸다.

공사인부 형사 : 제압했어요.
반장 : 투입.

골목에 숨어있던 무장경찰들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맨션으로 달려간다.

-14. 1105호. 다이아를 감정하기위해 준비하는 감정사.
라이트박스에 전원을 연결한다.

웨이홍 : (중) 그래.. 내 다이아는 왜 훔쳤나?
마카오박 : (중) 아직 멀었어. 니건 다 훔칠거야. 위스키?

커튼 너머 주방에 불을 켜는 마카오박. 위스키를 꺼내는 그의 그림자가 커튼에 비친다.

애꾸눈깔 : (중) 삼촌! 그때 저 새낄 왜 안 죽였어요?
웨이홍 : (중) 쿵지가 죽기전에 한말이 뭐지?
애꾸눈깔 : (중) 살려주세요.
웨이홍 : (중) 저 친구는 그런 애길 안하더라구. 허허허. 어이 다린 괜찮나?
애꾸눈깔 : (중) 안괜찮은 것 같은데 낄낄..

감정사가 다이아를 들여다보다가 다이아를 내려놓는다.

감정사 : (중) 이거 지르코니안데요.
웨이홍 : (중) 무슨 소리야?
감정사 : (중) 저새끼가 지금 우릴 갖고 놀았다는 말이죠.

감정사가 망치로 다이아를 박살내자, 애꾸눈깔이 권총을 꺼낸다. 커튼 너머 마카오박은 말없이 서있다. 마카오박을 쏘는 애꾸눈깔.

-15. 환기구를 타던 애니콜이 총소리에 멈칫한다.

-16. 맨션 밖.
청소차에서 잡은 사내를 끄집어내는 경찰들. 줄리가 달려와 손목을 보더니,

줄리 : (무전기로, 중) 웨이홍은 위에 있어요.

-17. 1103호.
애꾸눈깔이 거덜난 커튼을 열면 마카오박은 없고, 조명 앞에 조그만 사람모양 판촉물이 그림자의 정체다. 쪽문을 열면, 열린 창문. 밑을 보자, 자일을 맨 마카오박이 배관을 타고있다. 총을 발사하자, 배관을 발판삼아 옆쪽으로 뛰는 마카오박. 1105호 창문너머로 사라진다.

-18. 11층 복도.
패거리들이 복도로 나오는데, 마카오박이 1105에서 나오더니 반대편 계단을 내려가는게 보인다. 그 뒤를 쫒을 찰나, 계단을 올라오는 경찰들이 복도에 접어든다. 엘리베이터를 지키던 패거리가 경찰들에게 총을 발사하자, 계단밑에서 응사하는 경찰들. 애꾸눈깔이 웨이홍을 보호하며 총을 쏘는데, 웨이홍은 자기 옆으로 쏟아지는 총탄에도 눈 하나 꿈쩍 않는다.

-19. 계단. 애꾸눈깔 패거리들이 마카오박을 쫒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서가던 패거리 한명이 발을 내딛자 자일이 덫처럼 감기더니, 부비트랩처럼 허공으로 매단다.
계단밑에서 자일 끝 카라비너를 층계에 거는 마카오박. 웨이홍 패거리가 내려오는 걸 보고는 자일을 몸에 감고 창문을 뛰어 박찬다. 허공을 날며 내려가는 마카오박.
패거리가 창밖을 향해 총을 발사하자, 구조물들을 박살내며 삼층밑 계단 창문으로 사라지는 마카오박. 다들 마카오박을 쫒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경찰2팀이 복도에서 나타나자, 웨이홍이 총을 발사한다. 쓰러지는 경찰. 패거리 두명이 경찰을 막아서는 사이, 태연한 모습 으 로 계단을 내려가는 웨이홍. 애꾸눈썹과 패거리들이 재빨리 그 뒤를 따른다.

-20. 맨션안. 11층 복도.
비장하게 혼자서 경찰을 막던 패거리. 연막탄을 터뜨리고는 총을 난사한다.
환기구 구멍을 뚫는 총알에 놀라는 애니콜.

뽀빠이 : 다이아는?
애니콜 : 내가 갖고있지.
뽀빠이 : 빨리 나와.
애니콜 : 니미 어디로 나가야되는거야?

애니콜이 환풍구를 긴다. 뽀빠이는 엘리베이터 천정에서 내부로 내려와 밖을 살핀다.

-21. 맨션 안. 중간층. 복도.
계단으로 내려온, 웨이홍과 패거리. 텅빈 복도. 어딘가 있을것같은 마카오박을 찾아 복도를 살피는데, 갑자기 방화벽이 쿵~ 떨어지며 무리가 나뉜다. 방화벽에 대고 총을 쏘는 웨이홍과 애꾸눈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방화벽 너머에서 들린다. 감정사가 레바를 당겨 박화벽을 올리면, 패거리 한명이 쓰러져있다. 방화벽이 올라가다 멈춘다.
엎드려 밖을 살피고는, 감정사가 기어서 통과하는데, 천정에서 뛰어내린 마카오박이 총을 발로 차더니 손목에 자일을 건다. 놀라는 감정사. 마카오박이 줄을 잡고 계단밑으로 뛰자 질질 끌려간다. 계단을 굴러 딸려가는 감정사. 그 뒤를 쫒아 총을 쏘며 내려가는 마지막 패거리. 애꾸눈깔이 창을 열자, 웨이홍이 옆건물로 뛰 어내린다.

-22. 엘리베이터 통로.
애니콜이 환풍구 창살에 가까이 다가간다. 엘리베이터 통로다.

애니콜 : 여기가... 엘리베이터 윈데.
뽀빠이 : 나 보여?
애니콜 : 창살이 안 열려.
뽀빠이 : 다이아부터 버려.
애니콜 : 내려가서 주면 안될까?
뽀빠이 : 나 못믿냐?
애니콜 : 아니 믿긴 믿는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23. 옆건물.
웨이홍과 애꾸눈깔이 건물을 내려오는데, 줄리가 둘을 발견하고, 총을 쏜다. 거리의 형 사들도 합세한다. 애꾸눈깔이 허리춤에서 수류탄을 꺼내 던진다. 지상에 떨어진 수류탄이 폭파하며 밀려난 차가 형사들을 덮친다. 줄리가 차에 깔린 형사를 끄집어내는 사이, 애꾸눈깔이 총을 난사한다. 형사들이 뒤로 물러난다. 애꾸눈깔이 웨이홍에게 인사하자, 뒷문으로 나가는 웨이홍. 애꾸눈깔이 길을 터주며 총을 난사한다.

-24. 엘리베이터 통로.

뽀빠이 : 믿고 던져. 주차장에서 기다릴테니까.
애니콜 : (수류탄 터지는 소리에) 알았어. 던진다.

애니콜이 창살 사이로 벨벳 주머니를 던진다. 엘리베이터 천정으로 떨어지는 주머니.
뽀빠이가 다시 천정으로 올라간다.

-25. 맨션안. 복도.
마카오박을 향해 총을 쏘며 계단을 내려가는 패거리. 마카오박이 엘리베이터로 돌진하더니 문에 부딪치자 출입문이 젖혀진다. 통로로 레펠 낙하하는 마카오박. 벨벳주머니를 움켜쥔 뽀빠이가 위를 보는데, 패거리가 탄창을 비울때까지 난사하자, 줄이 끊어진다.

-26. 엘리베이터 통로.
떨어지던 마카오박이 엘리베이터 줄을 잡고 속도를 줄여 천정으로 떨어지며 뽀빠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무너진다. 삐져나온 공구에 몸이 찔린 뽀빠이. 겨우 빼내더니, 일어서려는 마카오박에게 그걸 찌른다. 몸을 피하며 칼날을 움켜쥔 마카오박. 둘이 서로 노려본다.

뽀빠이 : 시발놈아 지옥에 있다고 했지.

뽀빠이가 칼을 든 손에 힘을 주자, 더 움켜잡는 마카오박.

마카오박 : 너 왜 그랬냐? 왜 줄을 잘랐어?

뽀빠이　: 넌 왜 날 버렸는데? 너랑 펩시랑 가면 나는? 나혼자 개헤엄 치고 살라고?
마카오박 : 아무도 안 볼때는 치고 살아야지.

뽀빠이 찔린곳을 누르는 마카오박. 뽀빠이가 고통을 느끼며 칼에서 손을 땐다. 뽀빠이 목덜미를 잡아챈 마카오박. 안아주며,

마카오박 : 기호야! 박기호! 병원부터 가라.

칼을 버리는 마카오박. 피흐르는 손으로 옷을 벗는데, 점퍼안에 경찰기동대 복장. 구겨넣은 모자를 쓰고 피를 흘리는 손을 움켜잡고 엘리베이터를 나간다. 계단을 올라오는 경찰들을 지나치며 내려가는 마카오박. 혼자남은 뽀빠이는 벨벳주머니를 찾아 공구더미를 뒤진다.

87. 맨션 앞.

-1. 옆건물. 경찰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며 내려가는 애꾸눈깔. 아수라장이 된 건물앞. 반장과 수사과장이 건물창 너머로 애꾸눈깔을 향해 총을 쏜다. 벽에 박히는 총알들. 애꾸눈깔이 계단을 미끄러지며 총을 놓친다. 경찰들이 달려오자, 뛰어 도망간다.

-2. 애꾸눈깔을 잡으러 뛰어가는 경찰들로 어수선한 맨션옆을 돌아나오는 마카오박. 열린 경찰차 한 대에 올라타더니 차를 출발시키는데, 줄리가 마카오박을 보더니, 급하게 뛴다.

줄리　: (무전, 중) 과장님! 마카오박이 지금 나왔어요.

형사둘이 타있는 차에 오르더니, 급출발하는 줄리.

88. 도로. 낮.

마카오박 차량을 쫒는 줄리차량. 거침없이 차량흐름을 붕괴시키며 달리는 마카오박을 끝까지 따라붙는 줄리. 마카오박이 급커브를 틀며 날개를 빠져나가자, 방향을 틀다 실패한 줄리차가 언덕을 들이받고 멈춘다.

수사과장 : (중) 카페에서 여자 체포됐을 때 페리티켓이 나왔대. 항구로 가.

89. 맨션 앞.

-1. 공구가방을 맨 뽀빠이에게 얼른 나가라며 등떠미는 진짜수위. 도로를 건너는 뽀빠이.

애니콜 : (전화) 뽀빠이. 어디야?

핸드폰을 버리고 급하게 걷는 뽀빠이. 맨션건너 건물틈에서 구경꾼들과 함께 보던 앤드류.

앤드류 : (전화) 뽀빠이? 지금 혼자 가는데?
애니콜 : 잡아!

앤드류가 뛰기 시작한다.

-2. 맨션 안.
환기구에서 내려오는 애니콜.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경찰들이 올라오자, 올라간다. 계단을 타고 물이 흘러내린다. 계단참에 걸어놓은 큰 타월을 집어들고는 옷을 벗으며 계단을 오르는 애니콜.

-3. 맨션뒤 건물을 돌아나오는 웨이홍. 여유있게 걷는다. 택시기사가 문을 열어놓고, 총소리 난 곳을 보고있는데, 그대로 운전석에 타고 출발하는 웨이홍.

-4. 맨션 근처. 도로를 뛰는 앤드류. 옆을 힐끔거리며 내달리는 뽀빠이. 앤드류가 숨이 차기 시작한다. 골목을 가로질러 뛰는 앤드류. 뽀빠이가 길가로 뛰더니, 달리는 택시 앞을 막아선다. 웨이홍이다. 재빨리 조수석문을 여는 뽀빠이.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쪽으로 뛰는 앤드류. 이 골목만 지나면 택시를 따라잡을 수 있을 찰나, 사람과 부딪쳐 나뒹군다. 벌떡 일어나면, 경찰차들 모여있는 집합장소.

앤드류 : (경찰이 일으키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팔요? 아뇨 안부러졌어요.

한쪽팔을 감싼팔을 놓으면 힘없이 떨어지는 팔. 길건너에서 뽀빠이가 탄 택시가 출발한다.

90. 도로. 낮.

택시안. 앤드류가 안보이자, 웨이홍 어깨를 두들기며,

뽀빠이 : 바로 서울로 올라갑시다.

공구가방을 열더니, 벨벳주머니를 꺼내 다이아를 확인하는 뽀빠이. 공구가방을 창너머로 던지고 환희의 숨을 몰아쉬는데, 돌아보며 웃는 기사 얼굴에서 서늘함이 느껴진다. 손등의 붉은 나비 문신. 뽀빠이가 굳은 표정으로 보는데, 길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빠져들어가는 택시. 도어락이 잠긴다. 권총을 빼드는 웨이홍.

뽀빠이 : 웨이홍?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살려줘.

발사되는 총알 두발. 뽀빠이 머리와 가슴이 관통된다.

91. 맨션 안.

옷을 벗고, 총격전에 부서진 수도관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는 애니콜. 반장과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샤워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내려오던 애니콜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른다.

반장　: 괜찮아요?
애니콜 : 아후~ 너무 무서웠어요.
반장　: 아래까지 모셔다드려.

축 늘어진 애니콜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가는 경찰.

92. 택시 안.

뽀빠이 품에서 벨벳주머니를 꺼내는 웨이홍. 벨벳주머니가 총에 찢겨져있다. 다이아를 꺼내보는 웨이홍. 다이아가 박살나있다. 일그러지는 웨이홍 얼굴.

93. 애니콜 회상 / 현재. 맨션 앞.

-1. 애니콜 회상. 숙소복도. 마카오. 밤.
애니콜　: (전화) 태양의 눈물 이미테이션. 뽀빠이가 얼마준대?
장물아비 : 이천. 왜?
애니콜　: 나도 하나 보내줘. 뽀빠이 모르게. 5천 줄게.
장물아비 : 니네 거기서 뭐하냐?
애니콜　: 도둑질.

전화끊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애니콜. 환하게 웃자, 펩시 소리 들린다.

펩시　: 땄다 이거.
애니콜 : 아~ 꼭 비싸고 좋은 건 둘만 먹을라 그래?

-2. 애니콜 회상. 로드스토우 베이커리. 해질녁.
서랍안에 두 개의 벨벳주머니. 그 중 하나를 꺼내주는 주인. 그걸 받는 애니콜.

-3. 맨션 앞. 구급차에서 옷가지를 입는 애니콜. 머리수건을 풀자 다이아가 나온다.

애니콜 : 역시 해피엔딩! 이걸 잠파노가 봤어야 되는데 짜식.

구급차에서 나오는 애니콜. 침대에 묶여 구급차에 실리는 애꾸눈깔을 뒤로 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급하게 달려온 수사과장이 애꾸눈깔 손목을 들자, 붉은나비 문신이 보인다.

수사과장 : (중) 웨이홍?
애꾸눈깔 : (중) 그래. 내가 웨이홍이다.
수사과장 : (무전, 영) 웨이홍 잡았어요. 반장.
반장　　 : (무전, 영) 그 사람 웨이홍 아닙니다.

마카오박 방에 붙은 웨이홍 사진을 바라보는 반장.

94. 항구 / 도로.

-1. 거덜난 줄리 차량이 속도를 높여 여객터미널로 달린다. 경찰차가 주차되있고, 여객터미널로 걸어가는 마카오박이 보인다. 이때, 오토바이 한대가 줄리차량을 앞질러 터미널쪽으로 달린다. 마카오박이 차량에서 내려 터미널로 걸어가는데, 오토바이가 반원을 그리며 마카오박에게 다가가더니, 멈춰선다. 헬멧 실드를 올리면 조니다.

조니　 : (중) 첸의 복수다 씨발놈아.

마카오박이 물로 뛰어들려는데, 조니가 두방을 연달아 발사한다. 의족이 박살나며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지는 마카오박.

-2. 터미널안. 들리는 총소리! 돌아보는 펩시. 혹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뚫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3. 터마널 밖.
줄리 차량에서 경찰들과 줄리가 내리며 조니에게 총을 겨눈다.

줄리　 : (중) 총버려, 조니!
조니　 : (중) 제복이 잘 어울리네.
줄리　 : (중) 버려 그냥. 조니! 제발~
조니　 : (중) 씨발 좋아했었는데.

줄리에게 총구를 돌리는 조니. 방아쇠를 당길 틈도 없이 경찰들의 총에 쓰러진다.

줄리　 : (중) 조니! 버리랄때 버렸어야지. 이 바보야. 목숨이 장난이니? 그게 멋있어? 휴~

망연자실, 열린 차에 걸터앉는 줄리. 마카오박이 총에 맞았다는 무전소리가 들려온다. 터미널 밖으로 나온 펩시. 죽어있는 조니와 부서진 의족을 본다. 물속을 보려 다가서려다 경찰복 입은 줄리를 본다. 줄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 펩시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다.

95. 김해공항. 낮.

중국관광단에 섞여 입국심사받는 웨이홍. 심사대옆에 붙어있는 웨이홍 사진. 직원이 손짓하자 무장경관 넷이 웨이홍에게 다가간다. 지그시 눈을 감는 웨이홍.

96. 레스토랑. 한국. 낮.

자막 뜬다. 1개월 후.
혼자 식사하는 펩시 뒷모습. 와인을 마시던 그녀의 눈길이 옆쪽 식탁에 앉은 손님으로 향한다. 부유해 보인다. 게다가 핸드백은 소홀하다. 와인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핸드백쪽으로 뱀처럼 기어가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손짓이 거두어지고 전화를 받는다.

장물아비 : 그동안 뭐한겨? 연락이 안돼.
펩시 : 취직이나 해볼까하고.
장물아비 : 취직은 애들이나 하는거지. 부탁 하나 허자. 뭐 하나만 빼다줘.

펩시가 핸드폰을 끊는다. 하지만 장물아비 목소리는 계속 들린다. 펩시 앞에 앉는 장물아비.

장물아비 : 이거 뭐 꺼끄러운 부탁이 아니고 내 친구 하나가 사업하다 망했는디 다 압류당한거야 부랄만 빼고. 뭐 좀 해볼라 그러니까 하필 중요한 서류가 거기 있드리야. 금고안에.
펩시 : 직접 하지 왜?
장물아비 : 하이고. 촛불 열심히 본다고 전구를 발명허나.
펩시 : 신문 봤어?
장물아비 : (고개를 빼) 부산 수족관. 도난. 상어 두마리? 미친놈이구만. 왜 웃어?
펩시 : 상어는 어항속에 살면 안되지... 그 금고가 어디에 있다고?

97. 물류창고. 낮.

경보기에 면도거품을 뿌리고, 컨테이너 열쇠를 딴다. 금고가 나타난다. 박살난 다이얼을 만지다가 열쇠구멍을 보는 펩시.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박스에 쓰여진 소유주 이름을 확인한다.

펩시 : 소유주가... 왜 나지?

주머니에서 꺼내는 열쇠. 마카오박이 손안에 쥐어줬던 것이다. 열쇠를 밀어넣자 금고가 부드럽게 열린다. 금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뒤쪽에서 장물아비가 나타나더

니 컨테이너박스에 앉으며 웃는다. 전화 받는다.

마카오박 : (소리) 자기 거를 훔치는 도둑은 자기가 처음일걸.
펩시 : 하나도 안변했네 사람 놀래키는 건. 어디야?
마카오박 : (소리) 여기가.. 여긴 비가 오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훔칠 게 하나 더 있어서.
펩시 : 잠깐만! 부산에서 나 배타러 갔었어.
마카오박 : (소리) 알아.

전화 끊긴다. 장물아비를 째려보는 펩시.

펩시 : 이 사람 어디야?
장물아비 : 그것까지는 얘기안해줘 걔는. (금괴 가리키며) 고건 내가 팔아줄게.
펩시 : 애니콜 소식 들은거 있어?
장물아비 : 우리 애니콜양은 싱가폴에서 다이아 판다고 소문 쫙 났던데 그 비싼걸 누가 사냐? 팔다 팔다 못팔으면 나한테 오겠지. 왜? 싱가폴 갈라고?
펩시 : 아휴 거긴 너무 멀다.

98. 비행기.

펩시가 일등석 좌석에 앉는다. 건너편에선 한 남자가 승무원에게 기내식 와인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있다. 펩시가 시사저널을 펼치는데, 미술관 관장 인터뷰가 실려있다. '한국의 루브루를 꿈꾸며'라는 헤드카피. '철통같은 보안' '고가의 소장품들'

승무원 : 와인은 어떤걸로 드릴까요?
펩시 : 그냥 괜찮은 레드 한잔 주세요.
남자 : 화이트로 드셔보세요. 기내식치고는 훌륭합니다. (승무원에게) 화이트로 화이트로.

펩시가 보면, 그 남자는 미술관 관장이다. 슬며시 시사저널을 밀쳐놓는 펩시. 관장이 힐끔 펩시를 보고는 다시 본다. 아무래도 말을 한번 붙이고싶은가보다.

미술관장 : 이거 제 명함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예술 쪽에 있는 분같아서.
펩시 : (명함을 받고는) 미술관하시면 예술가세요?
미술관장 : 아이구 예술은 무슨.. 도둑놈이죠 뭐. 솔직히 프랑스 루브르도 반은 전쟁때 훔쳐온거고.. 싱가폴에 남자친구 만나러 가십니까?
펩시 : 아뇨 후배. 여자.
미술관장 : 아~~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되는데.. 어! 거절 하지 마세요. 이런건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 사주에 여잘 조심해라. 어머니 말이 맞는데... 그렇다고 오늘도 조심해야됩니까? 그냥 식사 한번인데?
펩시 : 정말이지.. 도저히 노라고 말하기 힘들게 만드시네요.

미술관장이 펩시에게 와인잔을 부딪친다.

99. 싱가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스카이 파크.

풀에서 잠수를 끝낸 애니콜이 거친 숨을 내쉬고 수면위로 나온다. 선텐의자에 앉는 애니콜.

애니콜 : (영) 어이 내 방. 801호. 오늘. 내가. 약속. 싱가폴 남자. 애니 콜?
웨이터 : (영) 없는데요.

웨이터가 샴페인 한잔과 메모를 내려놓는다. 메모를 펼치자, '장물아비 명단 필요하니?'라고 적혀있다. 주위를 둘러보는 애니콜. 멀찌감치 떨어진 의자에 앉아있는 펩시.

애니콜 : (썩은 표정) 아휴 재 미친년 진짜 (고개돌리며 환한 미소로) 언니! 이런데서 보니까 진짜 친언니같다. 내가 계속 전화 하긴 했는데. 안받으시더라고.
펩시 : 니가 환자한테 링겔주사를 꽂았다 뺐다하는구나. 다이아는?
애니콜 : 방에. 장물아비 명단 주면 언니한테 30프로 줄게... 40프로 줄게. 근데 호텔 비를 한 달 동안 못 냈거든. 그건 언니가 내고.
펩시 : 호텔비 내줄 사람 데려왔다.
애니콜 : 뭐지? 이 불안감은.

수영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미술관장. 애니콜이 숨넘어가는 표정을 짓더니,

애니콜 : 오 마이 갓.

숨을 데를 찾던 애니콜. 어쩔 수 없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수면 위를 보니, 미술관장이 펩시 옆에 앉는다. 숨을 참는 애니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인데도 계속 참는다.

미술관장 : 후배분이 안 나오시네요.
펩시 : 어후 빠져 죽어야 되요 재는. 호텔비가 밀려서 못 나간데요.
미술관장 :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프론트에 갔다왔습니다.
펩시 : 어머 대신 내주신거예요?
미술관장 : 아뇨. 금방 누가 체크아웃하고 짐 가지러갔다는데.

100. 싱가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로비. 낮.

5분전. 로비. 체크아웃하는 마카오박.

직원 : (영) 801호. 체크아웃. 지금 수영장에 계시는데.

일단 짐부터 빼신다고 했으니까.
마카오박 : (룸 키를 받고 돌아서다, 영) 혹시.. 체크아웃 해야 될 방이 하나 더 있나요?
직원 : (영) 아! 네. 방을 두 개를 쓰셨네요. 여기 802호.

카드키를 받고 슬며시 웃는 마카오박.

호텔 복도.
경쾌하게 복도를 걸어오는 마카오박. 문을 열고 들어간다. 천천히 닫히는 문. 802호.

2010.12.24
끝.